



교육연합신문



2026년 3월 25일 (수) 제440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인터뷰-이득재 이사장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부산형 학교안전 정책'이 전국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교육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온 이득재 부산광역시학교안전정책위원회 이사장의 리더십이...

▶7면



보라데이 무한 약속 캠페인

부산광역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인 '보라데이 무한 약속 캠페인(Busan The Boraday Syndrome)'이 3월 8일 오후 1시 부산 연제구 온천천 농구대 앞 일대에서 열리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11면



학교탐방-부산관광고등학교

부산 관광·MICE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공식 출범했다. 부산관광고등학교(교장 정정부)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0시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 2층 씨앗홀에서 '2026학년도 부산관광고등학교...

▶16면

교육부,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전담 조직 설치·민원 대응 보호체계 마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구체화했다.

먼저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부담한 보육활동 짐해를 당할 경우 심리·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원이나 진정으로 인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 활동 보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보육교직원이 민원과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선 기자 kbs@

전남광주 교육통합, 시도민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

전남광주 교육공동체 첫 공청회 성료... 23일엔 순천 2차 공청회

전남남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은 3월 18일 광주교육청 시민 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광주 교육통합의 추진 사항을 교육공동체에 알리고, 현장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남도교육감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현장에서 질문에 답변하며 시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광주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해, 현장에 오지 못한 보다 많은 시도민들에게 교육행정 통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공청회에서는 주요 현안인 ▲통합 이후 교육공무원 인사 및 생활권 보장 ▲학생 출입 현상 방지 및



학교교인 설정 방향 ▲광주 '5·18 정신'과 전남 '의(義) 정신'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운영 ▲교육 재정 인센티브 확보 방안 및 특별법 추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대중 전남남도교육감은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시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이고 미래를 여는 탄탄한 교육행정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통합은 우리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미래 교육의 전환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교육행정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행정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석 기자 2580news@daum.net

서울교육청, 폐교 활용 미래 교육 거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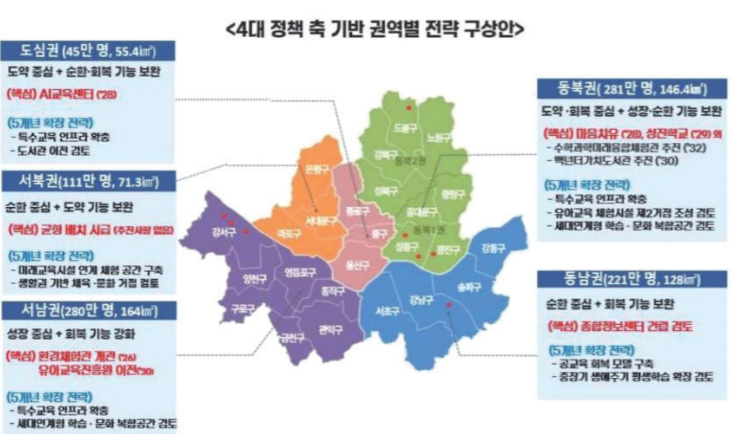
2030년까지 총 2732억 투입 5개년 전략계획 발표... 지역 연계 교육 플랫폼 전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월 18일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학교 이전지와 폐교를 미래 교육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 이전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732억 원을 투입해 폐교와 유휴 교육시설을 미래 역량 학습 공간과 지역 복합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교육 공간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5년 약 74만 명에서 2031년 약 53만 명으로 약 2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규모 학교는 지난 10년 사이 약 5배 증가하는 등 교육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개별 부지 중심의 활용 방식



은 재정 부담과 장기 미활용, 지역 갈등 등의 문제를 반복해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의 관점을 단순 시설 활용에서 미래 교육 공간 구축으로 전환하고, 교육과 지역이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이번 전략의 비전은 'THE School beyond School'로, 학교 공간을 넘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

는 미래 교육 복합 공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 거점형 공간 구축 ▲미래 교육·혁신 플랫폼 조성 ▲지역 맞춤형 복합시설 확대 ▲운영·관리 체계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 전역 5개 권역(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공간 모델을

김병선 기자 kbs@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6년 강서구 공진중 부지 '에코스쿨' ▲2027년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 '마음치유학교' ▲2028년 중로구 'AI 교육센터' ▲2029년 성수공고 '성진학교' ▲2030년 영등포 '유아교육진흥원 이전'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폐교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표준화한 실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 71%와 국비 등 외부 재원 29%로 구성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공동기금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폐교를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하는 중장기 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이라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부산 해양문화관광 전문 인재 양성

국립한국해양대, 해양문화관광학과 개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문화관광학과(학과장 권경선)가 첫 신입생을 맞이하며 학과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3월 12일 밝혔다.

지난 3월 9일 열린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대학 관계자,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과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학과 출범은 단순한 학과 신설을 넘어 지역 산업과 대학 교육이 연계된 새로운 인재 양성 모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은 해양을 기반으로 한 문

화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다. 해양문화콘텐츠, 해양관광, 해양레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산업을 전문적으로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협력해 해양문화관광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설립을 추진했고, 지역 기반 교육과 산업을 연계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맞물리며 해양문화관광학과가 설립됐다.

본 학과는 중등교육·고등교육·산업계 연계의 지역밀착형 인재 양성 모델로,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취업·후학습 경로 확대와 지역 정주형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환경 구축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해양문화관광학과 학생들은 해양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지역 기반 문화산업의 이해, 해양관광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배우며 학습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이정현 기자 ijh@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기초가 탄탄해야 배움이 성장합니다"

서울형 기초학력

- 교실 안** 수업 중에 바로 잡아주는 촘촘한 배움
- 교실 밖**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
- 협력강사** 수업 중 발생하는 학습 결손 예방

- 학교 안** 학교가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
- '키다리쌤'이 소규모 통합 지원
- 심층진단 집중학년제 운영

- 학교 밖** 전문가관과 연계한 원스톱(One-stop) 케어
- 서울학습진단 성장센터 운영
- 학습성장 네트워크 구성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의 **꿈** 교사의 **능치** 부모의 **신뢰**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이 예비후보 “무너진 인천 교육을 헌법의 가치 위에 다시 세우겠다”

이현준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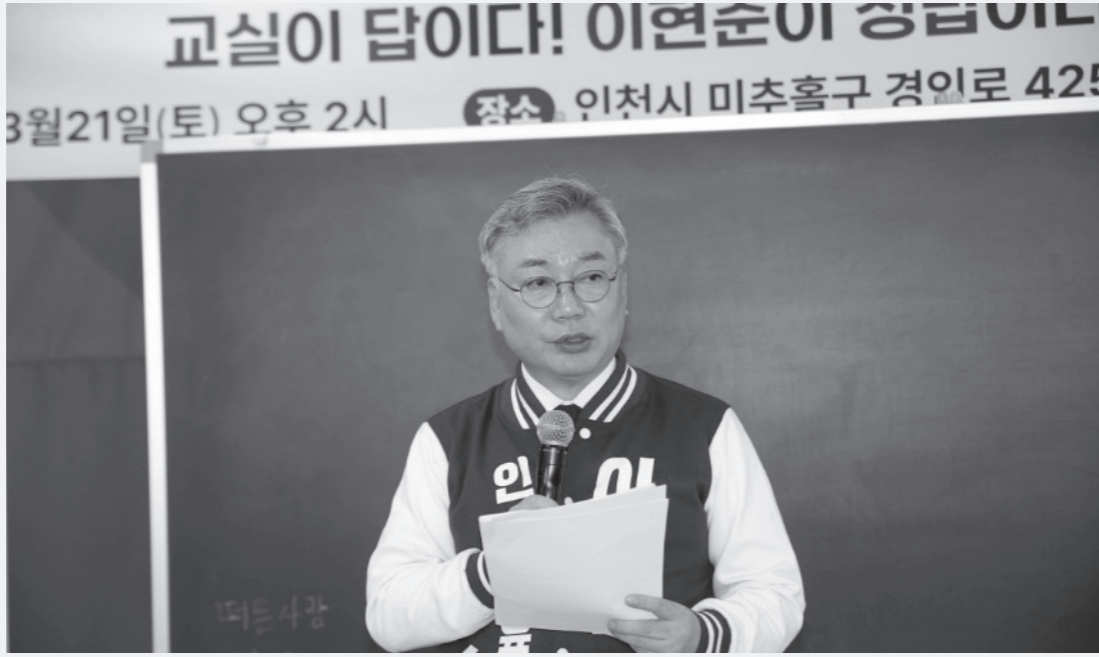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인사와 교육 관계자, 학부모,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선거사무소 현장을 방문해 인천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와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정치 행사와 달리 ‘교실’과 ‘수업’을 콘셉트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선거사무소는 학교 현장의 칠판과 교실 분위기로 연출됐으며, 사회자는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선언으로 행사를 시작해 차별화된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현준 후보는 개소식에서 “교육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교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행정이 교실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중간에는 이현준 예비후보의 ‘받아쓰기’가 진행돼 참석자



들의 큰 웃음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 예비후보는 즉흥적인 참여 속에 편안한 모습을 보이며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했다.

특히, 단일화를 주제로 한 받아쓰기 문장은 이날 행사의 핵심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할 때가 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옳지 않다면 함께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저는 아무 단일화나 하지 않겠다”라며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함께 가지 않겠지만,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가 되겠다”라고 밝혀 원칙 있는 단일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교실이 답이다! 이현준이 정답이다!’라는 메

시지로 마무리됐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교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무너진 인천 교육을 헌법의 가치 위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기존 정치 행사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형식과 메시지 중심 구성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인천 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용섭 기자 ays@

社說

세습의 도구가 된 교육, 다시 ‘사다리’로 복원하라

교육은 소수 카르텔의 신분 세습 도구가 아니다. 마땅히 국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학벌을 결정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특권층의 정보 독점과 복잡한 전 형은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이는 사회적 역동성을 가로막고 공정의 가치를 뿌리째 흔든다.

물론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수 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적인 과제다.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격차는 개인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수준이다. 출발선이 뒤떨린 경주는 공정한 경쟁이라 부를 수 없다. 기회의

불평등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체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이다.

정부는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입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교육이 다시 희망의 통로가 될 때 사회는 비로소 지속가능하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경기 전역 무상 통학 추진

AI 통학망 ‘안심에듀버스’ 공약 발표… AI 기반 맞춤형 노선으로 교육격차 해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전 지역에 무상 통학 버스를 도입하는 ‘안심에듀버스’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통학 환경과 신도시의 부족한 대중교통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기본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안 예비후보는 현재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인 통학 지원 버스를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면 무상화해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심에듀버스는 지자체장이 운행 구간과 대상 학생, 운행 시간을 설정하고 운송업체에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선 설정과 업체 계약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또한, 일정 권역 내 여러 학교를 연결하는 순환형 거점 노선을 구축하고, 스마트 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안 예비후보는 AI 기반 통



학 시스템을 함께 도입해 통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권역별·학교별 맞춤형 노선을 설계하고, 위치 알림 서비스와 안전 요원 배치를 통해 학생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 통학 순환버스는 지난 2024년부터 파주, 의정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까지 8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 예비후보는 이를 전면 확대해 경기도 전역에서 통학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생 중심의 학군 재검토를 통해 원거리 배정 문제를 개선

하고, AI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인 통학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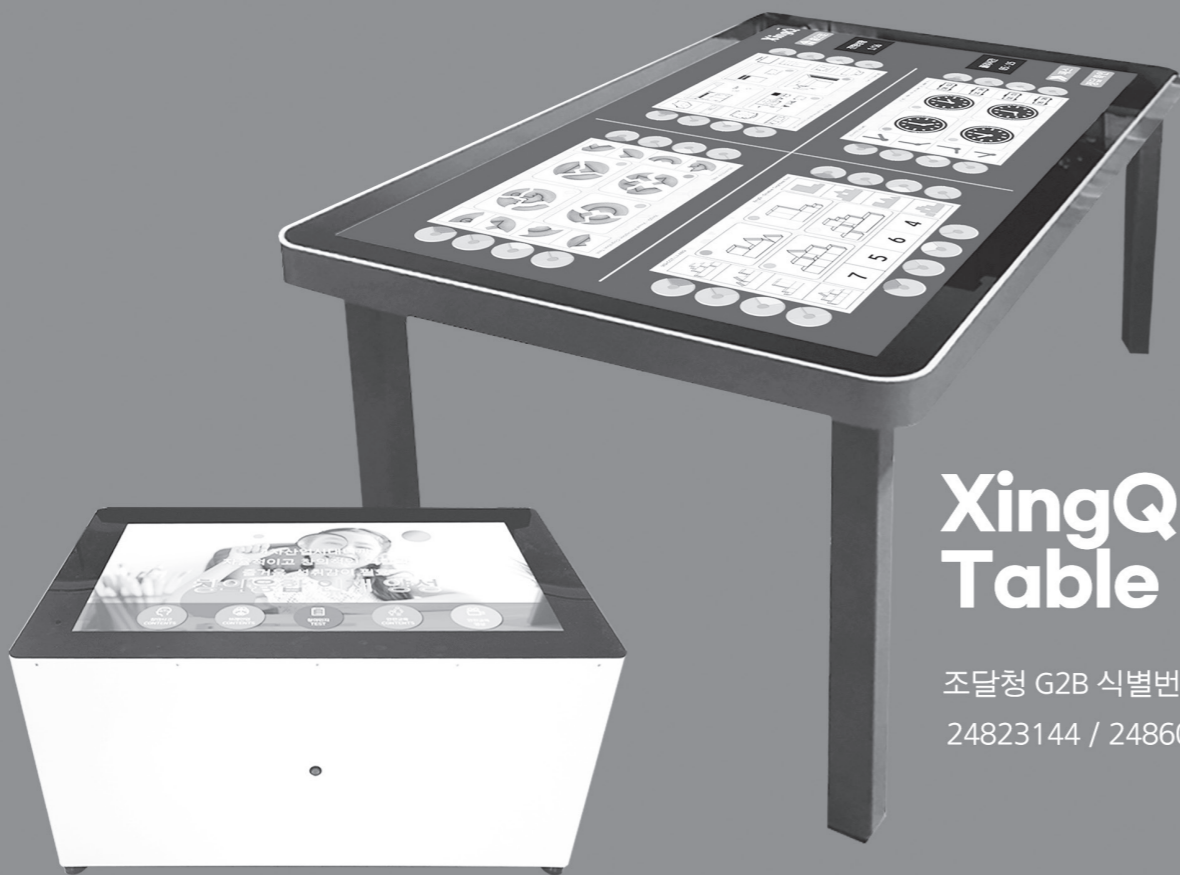
안민석 예비후보는 “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극 활용해 통학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통학 불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는 “장시간 통학과 과밀 버스 문제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실질적인 통학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www.creple.co.kr

케이스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무선 LED 캐비닛·AV 스위처·유무선 배너형 전광판 첫선



국내 LED 전광판 산업을 선도하는 (주)케이스스(대표 천병민)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공공조달 전시회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가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고 3월 17일 밝혔다.

케이스스는 이번 엑스포에서 제1전시장 J53 부스를 통해 자사의 핵심 기술력을 집약한 신제품을 공개하며, 공공조달 시장을 겨냥한 국산 LED 전광판 기술의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케이스스는 국내 최초로 안내전

광판 혁신제품 및 우수제품으로 동시 지정된 기업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자체 SMT 생산 기술 기반의 3대 핵심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개 제품은 ▲무선 LED 캐비닛 ▲케이스스 AV 스위처 ▲유무선 배너형 LED 전광판이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무선(Wireless) LED 캐비닛’이다. 기존 전광판 설치 시 필수적이었던 전원선과 데이터 통신선을 제거해 케이블 불량으로 인한 장애 요인을 원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케이스스는 전시장 부스 내에 로봇팔을 배치해 무선 캐비닛을 자동으로 결합하고 즉각적으로 영

상을 송출하는 시연을 통해 하드웨어 혁신을 직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케이스스 AV 스위처’ 역시 눈길을 끈다. 외산 장비 중심의 LED 컨트롤러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실무 환경에 최적화된 ‘한국형 컨트롤러’를 표방하며,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자사 전광판과의 높은 호환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유무선 배너형 LED 전광판은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배너 및 스탠드형 제품군을 유선·무선 타입으로 다양화해 광고서 로비, 행사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설치가 가능하다.

케이스스는 이 밖에도 기상청 정식 승인 센서를 적용한 전자현수막 형태의 ‘LED 기상전광판’을 출품해 지자체 재난 정보 전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스 전면에는 대형 LED 전광판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몰입형 전시를 구성하고, LED TV 및 아웃도어 캐비닛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도 함께 소개한다.

케이스스 천병민 대표는 “이번 엑스포는 케이스스의 기술력이 공공조달 시장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라며, “출품된 핵심 기술은 실무자의 편의성과 유지보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에코델타시티에 350억 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국산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국내 G2B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요규 기자 hog@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가)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전북지사 063-226-0119 부산지사 051-711-1444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영남본부 054-273-3336

호남본부 0505-629-3366

제주지사 1522-1160

황요규 기자 hog@

“인천 교육 주권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임병구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학생의 하루’ 바꾸는 혁신 정책 발표·선대위 출범

임병구 인천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19일 책임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정책 발표를 통해 인천 교육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정책 발표, 선대위 출범 선언, 성명서 낭독, 그리고 선대위원토론 등이 진행됐다. 특히 임 후보는 본인의 핵심 슬로건인 ‘학생의 하루를 바꾸는 교육감’의 가치를 시각화한 ‘학생의 하루’ 정책 시리즈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부 자신감을 키우는 ‘즐거움 수업’ ▲건강한 식사와 존중의 문화 속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관계’ ▲좋은 공교육 돌봄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여유를 더하는 ‘풍요로운 아침 식사와 안전한 등굣길로 성장의 에너지를 채우는 ‘활기찬 아침’ ▲내 속도에 맞춘 배움으로 공부

자신감을 키우는 ‘즐거움 수업’ ▲건강한 식사와 존중의 문화 속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관계’ ▲좋은 공교육 돌봄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여유를 더하는 ‘풍요로운 아침 식사와 안전한 등굣길로 성장의 에너지를 채우는 ‘활기찬 아침’ ▲내 속도에 맞춘 배움으로 공부

선대위는 7월 1일 취임식의 승리를 상징하는 총 71명의 시민 위원으로 전격 출범했다. 박상문 상임선대위원장은 “71명의 위원은 인천 교육의 혁신을 이끌 든든한 동반자들”이라며, “멈춰버린 교육 현장의 동력을 되살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모두의 교육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시민과 함께 학생의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책임질 것”이라며, “지난 8년의 무능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참교육자의 자세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유능한 교육감’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발대식을 마친 임 후보는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임병구 기자 ays@

경찰청-한국농구연맹, 국민 안전으로 하나 되다

범죄예방·기초질서 확립·안전한 관람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3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농구연맹(KBL, 총재 이수광)과 범죄예방,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작년 9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의 협약에 이은 것으로, 프로스포츠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보이스포싱 등 초국가범죄,

암표 매매와 같은 기초질서 위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대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국민체감 홍보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농구연맹(KBL)은 4월 포스트시즌 개막을 앞두고 농구장을 찾는 국민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농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

가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관중 대상 보이스포싱 등 범죄예방 및 안전 수칙 홍보(경기장 전광판 송출, 홍보관 설치 등) ▲경기장 안팎의 인파와 차량 질서유지 협력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상호 협조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대응 ▲안전 문화 캠페인 및 공동 홍보콘텐츠 제작 등 내용으로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향으로도 프로농구의 매 경기철에 맞춘 범죄예방 홍보 및 안전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농구는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 겨울 스포츠로, 이번 협약은 경찰과 한국농구연맹(KBL)이 함께 더 안전한 경기장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국민 화합의 장인 경기장에서 전광판 등 대중 접근성 높은 기반 시설을 통해 보이스포싱 범죄예방 등 치안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백성민 기자 bse@

백승아 의원, 학교·유치원 운영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교육활동 침해자 참여 제한... 학교 운영 공정성·신뢰성 제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 대한 제도적 제한을 강화해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결정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

으며,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정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백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정사유를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상 결정사유 해당자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병선 기자 kbs@

강원교육청,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 종사자 건강 보호 ‘강원형 모델’ 도입 7월까지 마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올해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설비 전수 점검과 3단계 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강원도형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모델’ 개선계획을 7월까지 마련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문 설계·시공업체 부족과 방학 기간 공사 일정 제약 등으로 당초 목표였던 사업 완료 시점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시

공 이후 부정적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식생활교육관 환기설비 효율적 개선 TF팀’을 운영해 사업 완료를 전담 재정보했다. 사업 완료 시기는 기존 계획보다 1년 연장해 2028년까지로 조정했으며, 추진 주체를 기존 학교 중심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선 대상 학교 선정 방식도 학교 신청 중심에서 연도별 일괄 배정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강원도교육청은 환기설비 공사 완료 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결과를 점검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사에서 13개 학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문제는 후드 면풍속이 기준 대비 70~80% 수준으로 미흡하거나, 에어컨 등 외부 기류 영향으로 환기 효율이 떨어지는 사례였다. 이에 따라 해당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보완공사가 필요한 학교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동계방학 중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학교는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해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중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환기설비 개선 공사

를 완료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재시공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할 중기계획을 올해 7월까지 새롭게 수립하고, ‘강원도형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1단계 환기설비 기술지침 준수 ▲2단계 조리실 발생 기구 대상 공기살균 청정시스템 구축 ▲3단계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3단계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조리 종사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심리적 안정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선 기자 kbs@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경기형 기본교육’ 공약 발표... 교무행정·민원 대응 체계 개편 등 제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직원의 교육 활동 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경기형 기본교육’ 정책을 발표하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현장 중심 교육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학교가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무행정 개선과 민원 대응 체계 개편, AI 기반 행정 지원 등 학교 운영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공약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직원 업무 과중, 반복적인 민원 대응, 교육행정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의 대표적인 문제로 악성 민원과 교사의 직접 대응 부담을 지적하며 ‘학교민원 119’ 통합 대응 체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행정 시스템 중심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구축해 교사가 직접 대응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학생의 하루를 바꾸는 교육감”의 가치를 시각화한 ‘학생의 하루’ 정책 시리즈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업무 감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AI 기반 행정 지원이 실질적인 업무 경감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정책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 내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사·행정직·교육공무직 간 역할 체계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 간 업무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교무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해 학교 운영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학생의 하루를 바꾸는 교육감”의 가치를 시각화한 ‘학생의 하루’ 정책 시리즈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학생의 하루를 바꾸는 교육감”의 가치를 시각화한 ‘학생의 하루’ 정책 시리즈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교직원의 심리적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 체계와 상담 프로그램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직원 정신건강 문제와 교직 기피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교육 현장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학교 지원 중심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행정 구조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보다 행정 관리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교육지원청을 현장 지원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교사, 교육공무직, 학교 관리자 등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현장 중심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학생의 하루를 바꾸는 교육감”의 가치를 시각화한 ‘학생의 하루’ 정책 시리즈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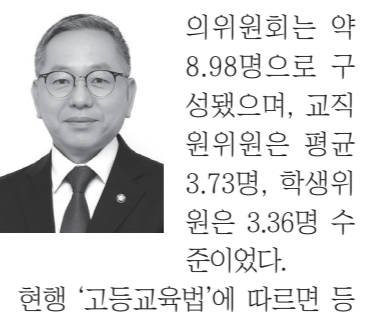
유은혜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학생의 하루를 바꾸는 교육감”의 가치를 시각화한 ‘학생의 하루’ 정책 시리즈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병선 기자 kbs@

김문수 의원 “등록금심의위, 교직원 비중 우세 여전”

336개 대학 중 140교 ‘교직원 우위’... 학생위원 37.44%에 그쳐 구조 개선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 반영 구조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 등록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심의 결과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행 구성 방식이 특정 집단에 쏠릴 가능성이 있는지,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인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비대칭을 줄이고 학생과 학교 간 충분한 협의와 동의의 기반으로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구성한 336개 대학 가운데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대학은 140교로 집계됐으며, 교직원과 학생위원이 동수인 대학은 174교, 학생위원이 더 많은 대학은 19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구성 전체를 살펴보면 총 2989명 가운데 교직원위원은 1243명(41.59%), 학생위원은 1119명(37.44%)으로 교직원위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 한 대학의 등록금심

의위원회는 약 8.98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직원위원은 평균 3.73명, 학생위원은 3.36명 수준이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각 구성단위는 절반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형식상 요건은 충족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이 동수인 경우에도 전문가위원의 성향에 따라 의결 결과가 학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교직원위원 5명, 학생위원 5명, 전문가위원 1명으로 구성된 경우 전문가위원이 학교 측 입장을 지지할 경우 학생위원 동의 없이도 의결이 가능하다. 김문수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 등록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심의 결과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행 구성 방식이 특정 집단에 쏠릴 가능성이 있는지,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인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비대칭을 줄이고 학생과 학교 간 충분한 협의와 동의의 기반으로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청년,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연구하다

노무현재단, 대학원 석사과정생 연구지원 공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사장 차성수, 이하 노무현재단)은 참여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을 주제로 전국 대학원 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2026년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하 연구지원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 시행하는 연구지원공모전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그 시대적 경험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신진 연구

자들의 시각에서 새롭게 탐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무현재단은 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했던 ‘사람사는세상’의 가치와 참여정부 철학을 연구하는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지도교수 1인과 석사과정 재학생 최대 3인으로 구성된 팀이다.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하며, 선정된 팀에는 400만 원(학생연구비 300만 원, 지도교수 연구

지도비 100만 원)의 연구지원금이 지급된다. 선정된 팀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연구를 수행한 뒤 최종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노무현재단이 주관하는 학술행사에서 연구성과 발표를 수행하며, 제출된 논문 중 우수작을 선정해 별도로 시상한다. 모든 연구성과물은 연구자료집 발간 등 재단의 학술적 목적으로 공개 및 활용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연구팀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archives@knowhow.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윤연 기자 lyy@

김병선 기자 kbs@

“교육비전위원회 선관위 검토 거친 정당한 행정”

전남교육청 “교육감 개인 홍보물 제작한 적 없고 외부 유포 자료와 무관” 반박

전라남도교육(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3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모집과 관련해 제기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자문과 검토를 거쳐 추진한 정당한 교육행정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출범에 대비해 시도민 참여 기반 교육 통합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의 장 마련하고자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공식선거법 위반 소

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긴밀한 자문을 구했다. 위원회 운영 목적과 홍보 방식, 위원 모집 절차 등에 대해 유선 협의와 공식 공문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았고, 추진 내용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뒤 추진했다.

논란이 된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 문구가 담긴 카드뉴스도 전남교육청이 제작하거나 공식 배포한 자료가 아니며, 공식 누리집과 공적 안내 채널을 통해 중립적인 정책 안내만 진행했다.

사정이 이렇음에도 외부에서 유포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

로 교육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학교 안내장과 학부모 알림을 통한 위원 모집 안내 역시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알리기 위한 행정 절차의 하나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학부모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안내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비전위원회는 위원 구성 이후 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지역 교육 현안과 전남·

광주 통합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과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의제와 제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의견과 정책 제안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 행정을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석 기자 2580news@daum.net

전남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학생 증가 성과

해양·문화예술 등 지역 연계 교육 효과... 모델학교 15개 확대 운영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9일 작은학교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의 일부 작은학교에서는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가 지역 특성과 학교 강점을 살린 교육과정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고, 최근 3년간도 1만5천 명 넘게 감소했다.

그러나 특성화 모델학교로 운영 중인 8개교 가운데 5개교는 학생 수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학교들도 감소 흐름을 멈추는 등 전남 평균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목포서산초는 바다와 항만을 활용한 해양 특성화교육을 운영하며 전학 수요가 늘었고, 화순 청풍초는 영화 제작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과정으로 학교 규모가 확대됐다. 군남초와 고흥대서중



역시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과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를 현재보다 확대해 2026년에는 15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음천초, 기산초, 진도서초 등 7개 학교를 신규 지정해 창업·진로, 스포츠, AI 디지털 창작 등 특색 교육을 강화한다. 또 20개 교육지원

청, 176개 학교에서 특색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곡성과 장흥에는 지역 연계 특성화교육 클러스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작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거점”이라며 “학생 중심의 특성화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찾아오는 학교와 살아가는 지역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민 기자 2580news@daum.net

“시민이 만드는 부산의 글자”

부산시, 내달 4일까지 시민공모체 공모전

부산시는 도시브랜드 전용서체 개발과 연계해 시민과 함께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민공모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이 글자 창작의 주체가 돼 부산의 모습을 글자로 표현하고, 이를 도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부산의 미래 가치와 도시 이미지를 시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Busan is good’ 슬로건과 연계한 세대별 서체 디자인을 제안받는다.

공모는 일상적으로 참여하기 쉬운 ‘손 글씨’ 부문과 창의적 조형

성을 담은 ‘글자 디자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Busan is good’의 핵심 개념인 ‘GOOD’을 단순히 좋다는 의미를 넘어 ▲세계로 열린 도시(Global),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도시(Open), ▲부산만의 고유 매력을 지닌 도시(Original),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Dynamic)라는 4개 가치로 확장해, 세대·대상별로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글자로 표현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참가 신청은 3월 5일

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서와 서체 디자인을 온라인(www.busanfont.com ‘작품접수하기’) 또는 오프라인(도시브랜드연구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156-11, 5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4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출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금상·은상 등 총 30개 작품을 선정하며, 총 4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박은숙 기자 pes@

장흥교육지원청, 노벨문학작가 학교 입학식 개최

폐교를 배움터로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인문교육 모델 제시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은 3월 17일 오후 1시 20분부터 장흥군 용산면에 위치한 합성행복배움터(구.장흥용산중) 체육관에서 관내 12개 초·중학생 33명과 보호자,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벨문학작가학교 입학식을 열고 문학 인재 양성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입학식은 지역의 풍부한 문학 자산과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학생 중심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장흥형 특화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교육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강사 소개 및 위촉장 수여, 테이프 컷팅식과 기념 식수, 교실 순회, 특별강연,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으며, 특별강연은 박맹수 前 원광대학교 총장이 맡아 문학과 인문학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벨문학작가학교는 문학 수업에 중심으로 역사, 신화, 시, 소설, 웹툰, 판화 등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울 예정이다. 초등 1·2학년과 중등반으로 나눠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작가와 교사가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창의적 글쓰기와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한 에듀택시 9대를 활용하며, 학교 후각 소속학교에서 용산면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게 되어 방과후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신선한 운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학단, 현관, 복도, 교실을 기차라는 테마로 꾸며, ‘장흥열차를 타고 신나는 문학여행’을 떠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장흥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지역 문학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학생 맞춤형 인문교육을 확대하고, 노벨문학작가학교를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높이고, 미래 문학 인재를 발굴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교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정행중 교육장은 “노벨문학작가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특별한 배움의 공간”이라며 “이곳에서의 경험이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세계를 향한 문학적 도전으로 이어질지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노벨문학작가학교 입학식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영순 기자 2580news@daum.net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인성93

윤문원 지음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씽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팡,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서로의 다름 이해하는 시간 갖는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제28회 전국 학생 백일장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28회 전국 학생 백일장을 개최한다.

1999년 시작돼 올해로 28회를 맞는 ‘전국 학생 백일장’은 학생들이 글과 그림으로 장애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장애 이해 교육 행사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소년한국일보, 삼성화재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KBS한국방송공사, WBC복지TV,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후원한다. 올해 주제는 ‘너답게, 나답게’다. 서로의 개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느낀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작품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유아(5~7세)부터 고등학생까지이며, 부문별 응모 분야는 유아(그림), 초등학생(시, 산문, 독후감, 방송소감문), 중·고등학생(시, 산문, 방송 소감문, 웹툰)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방송소감문은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인 ‘대한민국 1교시’나 청소년 장애 이해 교육 드라마 ‘알라딘’을 시청한 후 작성해 제

출하면 된다. 초등학생 대상의 ‘대한민국 1교시’는 4월 20일 오전 9시 KBS 한국방송 1·3라디오를 통해 송출되며, 발달장애 이해를 주제로 한 드라마 ‘알라딘’도 역시 장애인의 날 무렵 KBS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작품 접수는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우편(방문) 접수 또는 백일장 온라인 홈페이지(www.ablecontest.com)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수상 결과는 6월 11일 백일장 및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제출 작품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공모 요강과 교육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백일장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또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내 ‘새소식’ 게시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유연 기자 lyy@

서울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추진

작년보다 4.8% 감소 5조 9000억... 공교육 강화·고액 건설링 대응 등 종합 대책 마련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3월 13일 서울 지역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5조 9000억 원으로 지난 해 6조 2000억 원보다 4.8%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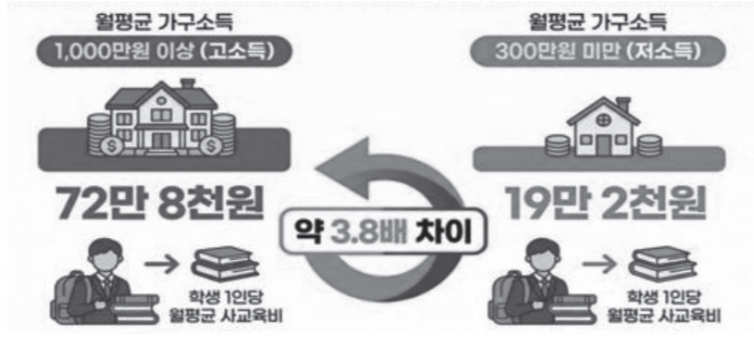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1.5% 줄었지만 전국 평균 45만 8000원보다 약 2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 8000원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 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책기획관 산하에 사교육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교육 경감 합동대책추진단'을 구성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해 왔다.

또한 학원 실태 확인과 현장 점검,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사교육 인식 설문, 영유아 조기 사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 심층 인터뷰



(FGD), 관련 법령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교육 인식 설문에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총 2만 5487명이 참여해 사교육 참여 현황과 주요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연구에서는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독성 스트레스(Toxic Stress)로 인해 뇌 발달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4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교육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학습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선행 사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

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자문 등을 통해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유아 대상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 지도·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점검 인력 확대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소득 수준에 따른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연결 돌봄을 확대하고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 있다.

아울러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방과후 및 돌봄 확대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 ▲EBS 수준별 강좌 확대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평가 질 관리 체계 구축 ▲직업계고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유·초 연계 이음교육 확대 등이다.

고액 임시 건설링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임시 건설링 비용은 시간당 30만 원 수준이며 '90분 90만 원'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교사 중심 진로·진학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AI 분야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 제공 체계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사교육 실태와 인식 관련 조사를 정례화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사교육 경감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중심 교육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입시 중심 경쟁 구조와 학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조적 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종로청사, 서울교육 성장지원 플랫폼 재편

SI교육센터·학생건강증진센터 구축 개방형 미래 교육 거점 조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 용산 신청사 이전에 맞춰 종로구 현 청사를 '서울교육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활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형 교육모델 확산, 학부모와 시민의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 청사를 학생·교직원·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복합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요자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해 공간을 재배치했다. 우선 본관 1~2층에는 AI 교육센터를 설치해 프로젝트형 체험교육과 기업·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해 디지털·AI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보건안전진흥원 1층에는 학생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해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교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본관 10층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조성해 순환근무와 협업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본관 3층부터 6층까지는



중부교육지원청을, 7층과 8층에는 보건안전진흥원을 이전 배치해 위생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행정 공간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보건안전진흥원 지하 1층과 2~3층에는 서버실을 확충하고 교육정보화 기능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행정과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정보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는 별관동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해 민간 입차 부담을 줄이고 노사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내진 성능과 화재 등 안전성 검토를 병행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추진 일정은 △지나해 활용 계획 확정 및 실행 계획 수립 △올해 투자심사와 예산 반영 및 설계 착수 △2028년 상반기 공사 완료 및 개관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성장 지원, 교육활동 내실화, 교육공동체 소통 강화, 디지털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종로구 현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서울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 아이디어 제안방 운영

교직원·학생·보호자 참여 확대... 부서별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행정 효율성 강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관내 학교 업무 처리 방식 개선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 제안방 운영과 부서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1일 밝혔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까지 참여하는 '중부 교육공동체 참여형 아이디어 제안방'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은 ▲교육·안전지원 ▲학교행정지원 ▲학교인력관리 ▲기타 자유 제안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법규와 학습, 현장체험 학습, 교통안전, 교복구매지원, 입

학준비금, 인력 운영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업무 전반을 아우른다.

또한 '중부교육지원청 부서 내 팀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학교 업무 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내부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경진대회는 업무 담당자 간 아이디어 공유와 협업을 통해 학교통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아이디어 제안 참여 방법을 안내해 교육공동체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팀별·주제별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격월 마

지막 주 수요일 정기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 개선을 이어간다.

최도규 교육장은 "교육공동체 참여형 아이디어 제안방 운영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높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 내부에서도 학교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학교수영장 넘어 부대시설까지 통합관리

헬스장 등 복합시설 전담운영 범위 확대로 안전관리 기준 정비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올해 3월부터 교육시설관리 본부의 학교수영장 전담운영 범위를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 확대에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장 정효영)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학교수영장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수영장과 연계된 부대시설까지 통합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3월 19일 밝혔다.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

을 운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책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수영장만 이관할 경우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했다. 특히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위학교 복합시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부대시설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이번 규칙 개정

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본부는 후속 조치로 그동안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복합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부대시설 운영까지 본부가 전담하게 돼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안전 기준 정비와 후속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지사 및 대리점 모집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 및 행정지원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건 그 어떤 수술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티에프메디칼과 점주님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COMPANY :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 1899-0971
 Tel : 031)941-0970
 Fax : 031)949-8445
 ADDRESS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 tfmedical@naver.com

Q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기교육청-넥슨재단, 청소년 코딩교육 협력

경기공유학교 기반 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창의·융합형 디지털 교육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월 18일 남부청사에서 넥슨재단과 경기공유학교 기반 청소년 코딩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넥슨재단의 코딩 플랫폼과 전문 인력 등 교육 자원을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교육과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경기공유학교 모델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코딩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넥슨재단 전문 인력 및 교육 콘텐츠 활용 ▲창의·융합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다. 특히 넥슨재단의 블록코딩 플랫폼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경기공유학교 학교·지역 맞춤형 공헌형 과정'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지역사회 전문가

의 교육 자원을 학교와 연결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디지털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게임과 창작 활동 기반의 교육을 통해 흥미를 높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지역 자원을 학생 교육에 연결하는 공공 교육 모델"이라며 "공정한 교육 기회 확대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업 넥슨재단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향후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파주 대성동초등학교 전교생 23명 대상 체험·실습 중심 교육 진행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관장 임윤재)이 지난 3월 11일 DMZ에 위치한 파주 대성동초등학교(교장 최일용) 전교생 2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체험·실습형 안전교육 참여가 제한되기 쉬운 학교

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대처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하임리히법 실습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실제로 가정해 현장·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신상민 기자 ssm@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아하! 무한놀이 체험' 운영

3~5세 유아 대상 새 단장한 체험 공간·신설 프로그램으로 놀이 체험 확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배미란)은 3월 16일부터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2026년 아하! 무한놀이 체험(기관 단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하! 무한놀이 체험'은 유아 체험 공간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확장해 나가는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올해 체험 공간과 운영 방식을 새롭게 보완해 놀이 체험의 폭을 확대하고 더 많은 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관은 유아의 발달 특성과 교육과정 연계를 고려해 총 9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주요 체험 공간은 ▲창의적 탐구와 협동 활동 중심의 '거꾸로 마을' ▲모험과 도전을 경험하는 '엄급엄급 정글' ▲책과 놀이가 결합된 '신나는 책마



루' ▲스토리 기반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 '하늘동동섬' ▲경기 지역 전통시장을 주제로 구성한 '경기 온마을놀이터' 등이다.

또한 올해는 오후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체험관별 이용 시간을 조정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

하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배미란 원장은 "유아에게 놀이 경험은 배움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실내·외 체험 활동을 통해 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수원 청명중, 국제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 획득

인증서 전달·현판 제막식 열려... 탐구 중심 수업 기반 미래형 교육 확산 기대



이날 행사에서는 IB 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인증서 전달과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청명중학교의 국제교육 역량 강화를 축하하고 탐구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인증서를 전달한 경기도교육청 이향순 학교교육정책과 과장은 "청명중학교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우리 공교육이 지향하는 미래형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학생 중심의 탐구와 성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청명중학교 박미경 교장은 "IB 월드스쿨 인증은 학생 중심의 배움과 수업 혁신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탐구 중심 학습과 국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IB 월드스쿨은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의 중요한 토대"라며,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현장의 노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IB 교육의 이해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간 협력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은 IB 교육 확산과 미래형 학교 교육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명중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해 3월 13일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의 청명중학교는 지난 1월 31일 IB 본부로부터 국제바칼로레아(IB) 중등과정(MYP) 운영 학교로 최종 인증을 받았으며, 3월 13일 교내 AI창의융합실에서 IB 월드스쿨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인증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수원은 경기도 내 IB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경기도 IB 학교 297교(2026년 3월 11일 기준) 가운데 43교가 수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중앙기독교고등학교에 이어 청명중학교가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으면서 수원 지역 IB 월드스쿨은 총 2교로 확대됐다.

경기 IB 학교는 경기교육의 축적된 자산을 토대로 학교와 지역의 맥락 속에서 미래형 학교 문화와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탐구 중심 학습을 통해 학생의 깊이 있는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미래 학교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상·하반기 수업 나눔 한마당, IB 교육 연수, IB 코디네이터 연수 등을 운영하며 학교 간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IB 학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PMZ

Pozzalan Mat Zone

평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졸란매트존입니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용인시
'여성길(Earthing)'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路) 조성

▶ 4줄란 매트길의 특성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항균
포졸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우아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경기교육청, 인공지능 중점학교 200교 운영

학생 맞춤형 AI 교육 실현 위한 교육과정 기반 교육 모델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3월 10일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 교육 역량 강화와 미래형 교육 모델을 확산을 위한 '2026년 인공지능(AI) 중점학교' 200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중점학교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인공지능(AI) 교육의 현장 안착과 학교 간 확산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1유형) 선도형 3교 ▲(2유형) 중심형 100교 ▲(3유형) 문화 확산형 97교를 선정했다.

선도형 학교는 인공지능(AI) 관련 교과 시수를 확대하고 인공지

능(AI) 기반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정보 수업을 초 68시간, 중 102시간 이상을 운영하며 고등학교는 매 학기 관련 과목을 편성한다. 중심형 학교는 인공지능(AI)·정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특색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교육 활동을 운영한다. 확산형 학교는 창의적체험활동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내 인공지능(AI) 교육 문화를 확산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중점학교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기반 인공지능(AI)·정보 수업 확대 ▲인공지능(AI) 교과 융합 수업 및 동아리 운영 ▲교사 인공지능(AI) 수업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모델 개발과 우수 수업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 현장 컨설팅과 중점학교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운영 사례와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학교의 인공지능(AI) 교육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중심의 인공지능(AI) 교육 모델을 정착시키고 학생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과 디지털 기반 미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상민 기자 ssm@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 두 축이 함께 설 때 학교 교육도 바로 선다”

이득재 이사장, 여행자공제사업·교원보호공제사업·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즉시 대응 체계 등 3대 핵심 정책 추진

인터뷰 | 이득재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이득재

- ◇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 ◇ 前부산동성고등학교 교장
- ◇ 前부산광역시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 ◇ 前부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부산형 학교안전 정책’이 전국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교육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온 이득재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최근 ‘여행자공제사업’을 도입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동시에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학생과 교원을 함께 보호하는 종합적인 교육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득재 이사장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는 학교 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학생들의 교육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득재 이사장이 주도한 ‘현장 중심 안전 정책’이다. 이 이사장은 교육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문제를 바탕으로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보장을 위한 ‘여행자공제사업’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즉시 대응 체계’ 등 3대 핵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여행자공제사업은 질병·전염병·재물손해까지 포함한 실질적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은 법률 지원을 넘어 심리 치유와 치료, 경호 서비스까지 포함한 종합 보호 체계를 갖추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득재 이사장은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학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연합신문은 이득재 이사장을 만나 부산형 학교안전 정책의 핵심과 주요 정책 아이템, 그리고 향후 비전을 들어보았다.

■ 부산학교안전공제회의 여행자공제사업은 어떤 제도인가?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체험 중심 교육이 확대되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했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올해 3월 1일부터 여행자공제사업을 시행해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위험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기존 보험 체계에서 보상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포함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기존 제도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이번 제도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설계했다. 주요 보장 항목은 ▲비급여 치료비 ▲질병 치료비 ▲질병 사망 위로금 ▲전염병 위로금 ▲식중독 위로금 ▲재물손해 ▲긴급조치비 ▲휴유장에 보장 확대 등이다. 특히 개인 소지품 손해까지 포함해 학생과 교사의 실제 피해를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 학교 현장에서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기존에는 학교가 직접 보험을 가입해야 했지만, 공제회가 통합 지원함으로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 간소화를 통해 교사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교권 침해와 민원 증가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 부산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배경은 무엇인가?

“최근 교권 침해와 민원 증가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소송비 ▲치료비 ▲심리상담 ▲경호서비스 ▲분쟁조정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필요 시 경호 서비스까지 지원해 교사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췄다.”

■ 사고 발생 시 대응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사고 발생 시 공제회와 교육청, 학교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신고 즉시 지원 절차가 자동되며 치료·법률·행정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부산형 학교안전 모델의 전국 확산

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부산학교안전공제회의 여행자공제사업과 교원보호공제사업은 하나의 통합된 교육 안전 정책이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부산형 학교안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학생이 안전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서 전국 교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국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교실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력이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건강과 보람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부산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황유구 기자 hog@

‘미니테이트’ 가수 윤영아가 또 다시 선물한 감동

‘어느 젊지 않은 여가수의 노래’ 시즌3 미국에서만 총 16회 공연 무대 올려져

‘미니테이트’와 ‘싱어게인’ 50호 가수’로 유명한 가수 겸 배우 윤영아의 자전적 연극 ‘어느 젊지 않은 여가수의 노래’ 시즌3 공연이 미국 4개 주에서 무대에 올랐다.

작년 2월 뉴저지와 뉴욕에서 첫 공연이 있던 후, 작년 7월과 8월의 앙코르 공연에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앙코르 공연이 이루어지며, 미국에서만 총 16회의 공연이 무대에 올려졌다고 3월 18일 밝혔다.

시즌3 격의 이번 ‘어느 젊지 않은 여가수의 노래’는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그린빌,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와 플로리다주 등 미 남부 지역과 뉴

욕, 뉴저지 등 4개주에서 총 6회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미국 동북부와 동남부의 넓은 지역에 걸쳐 한국의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는 연극이 무대에 올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느 젊지 않은 여가수의 노래’는 인기 절정의 가수에서 불행을 만나 혹독한 삶의 위협을 겪던 윤영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조금도 억지스럽지 않은 터치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 연극에서 하나님은 윤영아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윤영아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래서 윤영아는 정작 재기에 성공했을 때, 자신이 계속 노래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찾아내게 된다.

지난 시즌 1과 2을 통해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는 윤영아의 연기는 이번 공연에서 더욱 무르익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수로서뿐 아니라 배우로서의 역량을 입증한 윤영아의 연기를 두고 관객들은 “1시간 30분 동안 단순한 눈물 흘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열정에 압도 당해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공연에 빠



져들었다가 마지막 대사를 듣고서야 나 자신이 오열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됐다”, “마지막 노래가 끝나고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기립수를 치고 있더라”며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번 공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연기 경력 40년에 4백여편의

TV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베테랑 배우 김일우의 출연이었다. 김일우는 이 연극을 쓰고 연출한 임흥주 연출가의 대학 3년 선배로, 윤영아와 연출가의 간극한 출연 요청을 김일우가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 공연에서 3개의 다른 역할을 맡아 연기한 김일우는 중후함과 코믹함을 동시에 선보여, 베테랑 배우 김일우의 연기 자체가 볼거리였다. 평을 듣고 있다.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절제된 연기로 대 장면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공연을 거듭할수록 완성도와 다양성을 더해가고 있는 ‘어느 젊지 않은 여가수’와 윤영아의 선풍은 당분간 미국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정현 기자 ljh@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토요일학교 개강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28개 학급 6월 27일까지 운영

베트남 호치민에서 재외동포 어린이 교육과 교민 평생학습을 함께 이어가는 ‘토요한글학교’가 2026년 1학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3월 18일 밝혔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김명환)이 운영하는 호치민시토요한글학교는 3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4주 동안 1학기 수업을 진행한다.

토요한글학교는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한글학교 과정과 교민을 위한 문화 강좌를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교민 사회에서 보기 드문 복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1학기에는 어린이 387명, 성인 136명이 등록해 지역 교민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어린이 대상 한글학교 과정은 재외동포 자녀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업 대상은 유치 과정부터 8학년까지이며 총 28개 학급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학생들의 학년과 한국어 수준을 고려한 반 편성을 통해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유연 기자 lyy@

조달청 우수제품

성능 인증

GS인증 1등급

녹색기술 인증

친환경 표지 인증

산업융합혁신제품

우수발명품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 케이시스 스마트 자동화 공장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북원여자고등학교 입구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학산여자고등학교 강당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 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국내 최초 미세피치 LED 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600건 이상 구축'

14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국무총리상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 정부 조달청장 표창 |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 녹색인증 유공포상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국무총리상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정부 조달청장 표창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녹색인증 유공포상

제품문의
1600 - 6187

KSYS
www.ksys.co.kr

부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다케이타워 1F-6F

서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센터빌딩 IT타워 411호

대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브스니처지 749호

광주 | 광주 북구 침판리2로208번길 43-10 마루힐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주 | 제주 서문로 33

미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정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9 (모라동) 백영스마트빌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원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센터빌딩 IT타워 B110호

작은 목소리 모여 더 따뜻한 학교 조성

인천달빛초, 4~6학년 학생 자치활동 첫걸음 내딛는 뜻깊은 시간 가져

인천달빛초등학교(교장 장지란)는 4~6학년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학생 자치활동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3월 1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고, 앞으로 학교를 대표하게 될 학생 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 안내를 들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를 이끌어갈 대표를 어떤 기준으로 뽑으면 좋을지 이야기하며 자치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학교에게 바라는 모습 이야기하기'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해 졌는데,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쉼터가 있는 운동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다양한 행사가 있는 학교' 등 자신들이 꿈꾸는 학교의 모습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학교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또한, '응답하라 달빛초'라는 게

시판을 마련해 첫 모임에서 하지 못했던 의견들을 듣는 공간도 마련했다.

2026학년도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의 구성원을 넘어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인천달빛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인용섭 기자 ays@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밀실 단일화 결별"

보수 단일화 무산 관련 입장 밝혀... '가치 중심의 정책 단일화' 전격 제안

이현준 인천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범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의 파행 사태와 관련해, 밀실에서 이뤄지는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의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가치 중심의 정책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3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수 단일화 테이블에 참여했던 소회와 단일화 무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을 교육 정책인 양 포장한 진보 진영의 단일화 노음으로부터 인천 교육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단일화 논의에 참여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 교육의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유불리와 롤 세팅에 대한 계산만이 앞서는 모습에 매우 실망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측을 겨냥해 "선관위의 적법성 검토까지 마친 사안을 두고 '선거범 위반 우려'라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헌법 교육'의 가치를 위한 '한날 정치 구호로 치부하며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후안무



치한 발언까지 참아내야 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교육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순간, 그 교육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며, 단일화의 기준을 '누구도 합치느냐가 아닌' 어떤 교육을 위해 합치느냐로 완전히 바꿀 것을 타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가 내세운 '가치 중심 단일화'의 3대 기준은 ▲학력신장, 인성 교육, 미래 교육, 지역격차 해소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공동정책 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배우는 '인한날 정치 구호로 치부하며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후안무

육'에 대한 반대와 전면 재검토 촉구다.

이 세 가지 가치에 동의하는 후보가 있다면 어떤 조건보다 먼저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현준 예비후보는 지금 인천의 교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교육이 교실이 아니라 정치와 복지의 영역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교육은 다시 교실로, 정책은 다시 배움 중심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저 이현준은 오직 교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시 교실에서 시작하겠다"고 특집 있는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인용섭 기자 ays@

인천교육청, 성장하는 독서문화 생태계 만든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독서국가 독서인천'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월 18일 도성훈 교육감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와 '독서국가 독서인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창의·비판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와 가정, 마을을 잇는 시민 독서문화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의 독서 정책을 생애주



기별 독서교육 모델로 확산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제도적 지원과 교육청의 현장 실행력을 연계해 '독서국가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의 실행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독서 골든타임(6~9세) 조기 독서체계 확립

▲책 읽는 학교 정착을 통한 학생 독서습관 형성 ▲가정독서력 확산 및 가족 단위 독서문화 조성 ▲1마을 1권 읽기 등 지역 공동체 기반 독서문화 활성화 ▲독서국가 독서문화 기반 구축 및 제도적 확산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의 '읽건쓰'가 국회의 '독서국가' 비전과 결합함으로써,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독서문화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인천의 독서정책을 생애주기별 교육 모델로 확장하고, 국회와 함께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읽건쓰를 바탕으로 학생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ys@

인천교육청, '영종하늘누리센터' 준공

인천운서중 부지 내 교육·돌봄·문화 시설 조성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3월 6일, 인천 중구청 주관 준공식을 개최한 인천운서중 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영종하늘누리센터'가 정식 조성됐다고 3월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배준영 국회의원, 김정현 인천중구청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

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센터 건립은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특히 인천시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중구청이 시공 및 운영을 맡는 등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완성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영종하늘누리센터는 작은 도서관,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을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돌봄·문화 시설로 조성돼, 앞으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종하늘누리센터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ys@

인천교육청, 건강한 학교 문화 만들기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폭력 감수성 자가진단'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26학년도 학교폭력 감수성 자가진단'을 실시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행하는 행동이 학

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감수성을 점검하며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진단은 인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월 9일부터~20일까지 1

차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하고, 9월 중 2차 진단을 추가로 실시해 변화 양상을 파악하게 된다.

진단 문항은 ▲학교폭력 개념 인식 ▲공감 및 감수성 ▲행동 책임 및 실천 ▲학교문화 ▲사이버폭력 인식 및 예방 등 5개 영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용 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응답 직후 본인의 결과와 문항별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진단 결과

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지역 및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감수성'에 있다"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진단 도구를 활용하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ys@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에이엔알·드로미, 드론 기술·GeoAI 융합 맞손

전략적 업무협약... 드론 데이터·AI 기반 시설물 안전진단·통합 관제 플랫폼 공동 개발

지난 2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드론쇼코리아(DSK 2026)' 첫날, 드론 기반 실내의 종합 위치 인식 보안플랫폼 전문기업 (주)에이엔알(대표 이재균)과 GeoAI 기반 인프라 관리 전문기업 (주)드로미(대표 이승호)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드론 기술과 공간 정보 인공지능(GeoAI)을 융합해 공공·산업 인프라의 안전관리 및 보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차세대 스마트 인프라 관리 플랫폼 구축에 나선 계획이다.

(주)에이엔알은 드론 기반 실내의 종합 위치인식 기술과 보안플랫폼을 통해 산업현장, 공공시설, 재난 대응 분야에서 정밀 위치추적 및



통합 관제 솔루션을 제공해 온 기업이다. 특히 GNSS 음영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복합 위치보정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

(주)드로미는 GeoAI 기술을 기반으로 도로, 교량, 철도,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의 상태를 분석·예측하는 전문기업으로, 드론 및 공

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구축과 AI 기반 유지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 기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안전진단 자동화 ▲통합 관제·보안 플랫폼 공동 개발 ▲국내외 스마트시티 및 공공안전 사업 공동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에이엔알 이재균 대표는 "드론을 활용한 위치인식 보안 기술에 GeoAI 분석 역량이 더해지면 보다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안전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주)드로미 대표는 "양사의 기술 융합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인프라 상태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쇼코리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로, 드론·UAM·AI·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현호 기자 whh@

한국모형항공협회, 지도조종자 보수교육·정기총회

전국 지도조종자 120명 참석 모형항공·드론스포츠 발전 협력 논의

한국모형항공협회(KAMA, 회장 박찬덕)는 3월 14일 대전 동구정 소년자연수련원에서 협회 활동 중 인 지도조종자 120여 명이 참석해 모형항공 및 드론 교육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지도조종자 보수교육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오후 1시부터 시작돼 정기총회와 전문 강연, 지도조종자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이어졌다.

정기총회에서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개회선언 ▲회무보고 ▲심의안건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2025년도 사업실적 및 수치결산 승인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이 논의됐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구상욱 박사과 정인재 박사의 전문 강연이 진행돼 모형항공 및 드론 교육의 최신 동향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우현호 대표가 자체 개발해 24년부터 국내외 드론 스포츠 종목으로 대회 및 선수 양성을 진행 중인 '드론농구' 소개 강연을 통해 드론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과 교육 콘텐츠로서의 활용 방향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행사에서는 협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감사장 수



여로 ▲서용교 지도조종자(제1회 협회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후원) ▲이평용 지도조종자 ▲윤성욱 지도조종자 ▲박찬일 지도조종자 ▲심의안건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2025년도 사업실적 및 수치결산 승인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항공 분야 주요 소식도 공유됐다. 대한민국항공회 제30대 회장으로 김종훈 회장이 2월 27일부터 추대되면서 국내 항공 및 모형항공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으며, 각 분과별 2026년 국내 대회, 국가대표 선발 관련 등에 분야별 발전 방안을 토의해 제도와하기로 했다.

특히, 2026년 한국모형항공협회 대회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선수 확보를 통한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할 예정이며, 2026년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충청북도에서 개최될 '2026 WDSF 드론스포츠 국제대회'와 관

련해, 드론레이싱 대회를 세계드론스포츠연맹(WDSF)과 한국모형항공협회가 공동 주관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양 단체는 앞으로 드론 스포츠 산업과 교육, 국제대회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드론 스포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모형항공협회 김향식 사무국장은 "이번 지도조종자 보수교육과 정기총회는 전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형항공과 드론 스포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항공모형 문화 확산과 드론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모형항공협회 2026년 대회 일정, 대회 규정, 활동사항 등은 홈페이지(<https://www.k-ama.org/>)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미 기자 pym@

충북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첫 선정

WDSF와 협력 국제 드론 스포츠 대회 중심 'K-드론 스포츠 국제화' 추진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드론 스포츠와 드론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3월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44개 지자체 가운데 30개 지자체를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는 55개 드론 기업도 참여해 드론 기술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충청북도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분야에 선정되며 2026 WDSF 코리아 글로벌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를 중심으로 국제 드론 스포츠 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번 선정은 충청북도가 국토부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낸 성과로 지역 드론 산업과 드론 스포츠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충청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드론스포츠연맹(WDSF)과 협력해 국제 드론 스포츠 대회

를 개최하고 드론 스포츠 경기 운영 기술과 통신 안정화, AI 기반 기록·분석·중계 시스템 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주)드론디비전, (주)스카이봇, (사)한국무인기안전협회 등 대학과 기업, 협회가 참여해 드론 스포츠 운영 기술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한다.

청주대학교는 AI 기반 경기 기록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을 통해 경기 운영 기술 실증을 담당하고, 충북대학교는 대회장 전파 환경 측정과 통신 안정성 시험 평가를 수행한다.

(사)한국무인기안전협회는 대회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보험 및 책임 체계 구축, 비상 대응 훈련 등을 담당해 국제대회 안전 운영을 지원한다. WDSF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와 국제 세미나를 통해 세계 각국 선수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드론 스포츠 중심 지역이자 드론 산업 거점 지역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드론 산업 생태계 확대와 인재 양성

충청북도는 이번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계기로 드론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드론 기술 실증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드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충북을 드론 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드론 배송, 공공 안전,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 모델을 확대해 드론 기반 미래 산업 기반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충청도청 신산업과 김연오 팀장과 부서원들은 이번 사업 유치를 위해 관계 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력하며 준비를 진행해 왔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충청형 드론 스포츠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드론스포츠연맹(WDSF) 우현호 회장은 "드론 농구를 중심으로 드론 역도 등 다양한 드론 스포츠 종목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 대표팀 선발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해외 선수단 파

대전보훈청, 제대(예정)군인 취업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청원경찰 시험 대비 온라인 멘토특강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오재덕) 제대군인지원센터는 3월 12일 제대군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대비 온라인 멘토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공직 분야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청원경찰 채용시험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특강에는 정석민 제대군인 멘토가 강사로 참여해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주요 과목과 출제 경향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과 채용공고 분석, 합격 을 위한 입사 전략 등을 안내했다.

특히 실제 수험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전략과 준비 요령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전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

센터는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인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채용 설명회 및 취업특강 운영 ▲기업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 등이 있으며,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제대군인들이 군 복무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1666-927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현호 기자 whh@



드론농구(DRONE BASKETBALL)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WDSF
세계드론스포츠연맹회

하늘 위의 드론스포츠 "드론 농구"

DRONE BASKETBALL: A SPORT IN THE SKY

경기 규정 (RULE)

- 팀 구성: 3명의 선수
 - 각 팀 3명으로 구성
 - 실시간 동시 조종
 - 역할 분담 전략 중요
- 경기 시간: 총 3쿼터
 - 쿼터당 2분 진행
 - 쿼터 사이 2분 휴식
 - 작전타임 90초
- 공격 제한 시간
 - 24초 이내 득점
 - 시도 실패 시 공격권 전환
 - 빠른 판단 필요
- 득점 인정 조건
 - 드론의 골대 1/2 이상 통과
 - 위에서 아래로 진입해야 함
- 자동득점 시스템
 - 정확한 점수 측정
 - 실시간 스코어 업데이트
 - 공정성 확보



World of Aerial Sports Starts with WDSF 하늘 위 스포츠의 미래, WDSF에서 시작된다

2025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2025. 8. 9 - 8. 10
장소 : 청주 OSCO 2 HALL










The Future of Aerial Sports Starts with WDSF 하늘 위 스포츠의 미래, WDSF에서 시작된다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일시 : 2025. 8. 9 - 8. 10 | 장소 : 청주 OSCO 2 HALL | 후원 : (사)한국무인기안전협회 | 후원 : (주)에이엔알 | 후원 : (주)드로미 | 후원 : (주)스카이봇 | 후원 : (주)드론디비전 | 후원 : (주)에이엔알 | 후원 : (주)드로미 | 후원 : (주)스카이봇 | 후원 : (주)드론디비전 | 후원 : (주)에이엔알 | 후원 : (주)드로미 | 후원 : (주)스카이봇 | 후원 : (주)드론디비전

세계드론스포츠연맹회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전화 +82(10)-5080-9116, -
이메일 : wdsf9116@naver.com)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rone_sports





<https://worldfurni.com>



부산·경남 가구 조달 판매 1위

WORLD FURNITURE

상담전화
1588-3886

 월드퍼니처
www.worldfurni.com

**학교 교육용 가구 전문 생산업체 월드퍼니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품질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연계고용담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BENEFIT 02

총액 계약

조달청과 수의시담
하여 계약을 체결

BENEFIT 03

수의 계약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 가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 1588-3886 |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

부산교육청, 특수학교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지원 인력 보강·예산 33억 원 확대 등 사각지대 없도록 온 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방과후·돌봄 교육 환경을 위해 방과후·돌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과후·돌봄 지원 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3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특수학교(급) 방과후·돌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무보수 '자원

봉사자' 형태로 지원했던 특수학교(급) 방과후·돌봄 보조인력을 올리는 임금을 지급하는 '외부인력'까지 유형을 확대 운영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방과후·돌봄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방과후·돌봄 운영 지원 예산도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난해 약 25억 원이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예산을 올해는

약 33억 원까지 확대 편성해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학 중 공사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특수학교는 '늘봄전용학교' 시설을 활용하게 해 공백없는 방과후·돌봄을 지원할 계획도 마련했다.

초등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 '늘봄실무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주 20시간 계약제 근무였으나, 올해부터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직을 전격 배치, 특수학교 방과후·

돌봄 행정업무를 전담 지원케 했다. 이들이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학교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장애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은 꿈을 키우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산교육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방과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교육발전위원회, 보라데이 무한 약속 캠페인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위한 시민 공동체 실천 건강한 사회문화 확산

부산광역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보라데이 무한 약속 캠페인(Busan The Boraday Syndrome)'이 3월 8일 오후 1시 부산 연제구 온천천 농구대 앞 일대에서 열리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교육발전위원회, 연제구가족센터,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주최·주관하고, 한국자격기술원(KICPA)과 교육연합신문이 후원했으며, 시민 참여형 캠페인



부산교육발전위원회 회장 엄지아(좌) 사무총장 우승현(우)

한 시선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 "가족이 안전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지역의 미래도 밝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라데이'는 매일 8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변을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의미를 담은 전국적인 캠페인이다. 보라색은 사랑과 존중, 배려의 상징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공동체적 약속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폭력 예방 교육 부스 ▲보라 테마 체험 프로그램 ▲가족 상담 및 지원 안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보라색 리본 달기와 캠페인 메시지 작성,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공동체 참여의 가치를 되새겼다.

부산교육발전위원회 엄지아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라데이는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지켜보자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우리 주변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한 시선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 "가족이 안전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지역의 미래도 밝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라데이'는 매일 8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변을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의미를 담은 전국적인 캠페인이다. 보라색은 사랑과 존중, 배려의 상징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공동체적 약속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폭력 예방 교육 부스 ▲보라 테마 체험 프로그램 ▲가족 상담 및 지원 안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보라색 리본 달기와 캠페인 메시지 작성,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공동체 참여의 가치를 되새겼다.

부산교육발전위원회 엄지아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라데이는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지켜보자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우리 주변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과 따뜻한 시선이 폭력을 예방하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아이와 가족이 안전한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며, "연제구 역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형철 부산시의원, 안재권 부산시의원, 권종현 연제구의회 의장, 차성민 연제구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여러 기관·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시민들과 함께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부산교육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한 공동체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특히, 김재오 연제구가족센터장과 최진령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가족 상담과 아동보호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복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요기 기자 hog@

부산경남여중 배구부, 전국소년체전 부산 대표 선발

부산초·중학생체육대회 여중부 우승... 공식경기 20연승 기록

부산 경남여자중학교(교장 이춘희) 배구부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로 선발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여중은 지난 3월 8일 열린 2026년 부산초·중학생체육대회 여중부 배구 결승에서 부산여자중학교를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승으로 경남여중 배구부는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부산 대표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어 올해 대회에서도 전국 정상 수성을 향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남여중 배구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공식 경기 20연승을 기록하며 안정된 경기력과 팀워크를 과시했다. 2025년 공식 경기 기준으로는 30전 29승 1패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부산 중등부 배구의 강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수들은 "지난해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이어가고 싶다"며, "부산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지원 코치는 "이번 우승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경남여중 배구부의 저력과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교장은 "경남여중 배구부가 그동안 성실한 훈련을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부산 대표로 선발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며 건강한 학교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여중 배구부는 꾸준한 전국대회 출전 경험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산 학교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과 함께 올바른 스포츠맨십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학교 운동부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숙 기자 pes@

(사)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제4대 박수영 회장 취임

"청소년 눈높이 정책 실현과 지도사 전문성·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월 15일 오후 2시 경북 경주시 화랑마을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수영 신임 회장(사진)의 취임을 공식 의결·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신임 회장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청소년학 1호 박사 출신으로, 부산 그랜드모

먼트 유스호스텔 운영대표를 맡고 있으며 오랜 기간 청소년지도사 현장 활동과 정책·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기여해 온 인물이다. 그는 동명대학교 한국어교육다문화학과 초빙교수, 부산광역시청소년지도사협회 부회장,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 동원유스호스텔 운영대표, 부산청소년여울림

센터 센터장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도사 권익 증진에 힘써 왔다.

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박수영 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이어 취임식을 진행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2026년~2028년)으로, 앞으로 전국 7만 6천여



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대표해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박수영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국 청소년지도사들과 함께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진짜 청소년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윤영 기자 juy@

OMAX

(주)오맥스

AI·데이터 기반 미래형 과학실, 우리가 만듭니다

디지털 전환시대 지능형 과학실도 진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기자재 에듀테크 1등 기업

설계부터 구축까지, 지능형 과학실 토탈 솔루션

현미경

WiFi 현미경

실물화상기

VR

밀폐시약장

Tel : 1544.9343

충북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현장 중심' 개편

현장 목소리 반영 프로그램 개선·운영체계 정비... 학교 부담 완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25년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과 지도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청소년단체 활동은 일부 학교에서 실적 위주의 형식적 운영으로 흐르거나 지도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활동 취지와 달리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기록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프로그램을 개선해 현장의 질 향상과 학교 현장 부담 완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이 의미 있는 공동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학업 중심 학교생활로 야외활동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협력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조직·운영 체제 정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향상 ▲학생 참여 활성화 ▲지원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지도교사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원격·직접 연수를 포함한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지도교사 워크숍 운영과 교육감 표창을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단체 운영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생 수에 따른 지도교사 배치를 합리화해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형식화를 막고 활동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을 권장하고 '청소년단체 연합 페스티벌'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충북 학생 체인지(體仁智) 플랫폼'과 '학교형 청소년 포상제'를 연계해 활동 과정을 중심으로 관리

하고,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 운영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학교가 안심하고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개편은 과거의 좋은 전통은 복원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형식적 운영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충북교육청, 본청 직원 마음 회복 위한 상담·치료 지원 마련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0일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

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신속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상담 기관과 인근 병원을 연계해 피해자 중심의 비밀보장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본청 직원은 상담 협력 기관 2곳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병원 2곳과 연계된 대표번호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청주 인근 병원도 함께 안내해 선택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했다.

특히 상담과 진료 신청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기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별도 링크를 통해 신청부터 진료비

청구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지원이 불법 촬영 사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비밀보장을 기반으로 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교직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윤건영 교육감 "피해학생 회복·학교 안전 최우선"

기획회의서 청주 고교 학교폭력 사안 신속 대응·현장 안전 확보 당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0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청주 모 고교 학교폭력 사안에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병행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다친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학생 응급 조치 후 병원 이송, 가해학생은 즉시 분리 및 출석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어, 피해학생과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까지 포함해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학부모 안내와 소통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또한, 전 학급 대상 상황 공유와 심리지원 안내, 학교 흥기반급



지 등의 학교안내 가정통신문을 재발송 하는 등 학교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병행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어떤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피해학생의 회복과 학교 안정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같은날 통합위기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학급 안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며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사직초 통학로를 직접 점검하고, 인근 재개발공사로 인해 학생 보호 안전이 취약해진 상황을 확인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공사 장기화로 인한 학생 안전 우려에 대응해 통학버스를 지원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자자체에 안전시설 신속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단재고, 충북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 개최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습관 기르는 교육 전개"

단재고등학교(교장 정관숙)는 20일 단재고 아트리움에서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충북 최초 IB 월드스쿨로서의 출발을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기념했다.

단재고는 2025년 3월 개교 이후 국제바칼로레아(IB) 후보학교 운영을 통해 IB 학교로서 기반을 다졌으며, 2025년 12월 29일 국제바칼로레아기구(IBO)로부터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이번 선포식은 충북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을 기념하고 학교의 교육 방향과 IB 교육 철학을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도의회 교육위원과 지역구 시·도의원, 단재고 학생·학부모, IB 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증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장의 IB 월드스쿨 인증 경과 보고와 학생 소감 발표, IB 월드스쿨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되며 단재고의 IB 월드스쿨 출발을 알렸다. 이어 윤건영 교육감과 단재고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감과의 대화'가 진행돼 IB 월드스쿨의 의미와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시하(단재고) 학생은 "IB 교육을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배우는 경험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IB 학습자로서 깊이 탐구하며 세계와 연결된 배움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단재고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충북 공교육이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국제적 기준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IB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 주체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충북교육청, 학생 중심 예술교육 확대

중원교육문화원, 충주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원교육문화원(원장 신기철)은 20일 (재)충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백인옥)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북교육청의 '나

도 예술가' 정책 추진과 연계해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 중심의 예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예술 자원 공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문화예술 행사 홍보 및 참여 ▲예술교육 체험처 공유 등으로,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예술교육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원교육문화원은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예술 시설을 체험 공간으로 개방해 학생과 지역 예술인의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재)충주문화관광재단은 교육·문화예술 행사 참여를 지원하고, 예술교육 홍보를 강화하며, 학생에게 지역 예술체험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기철 중원교육문화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나도 예술가' 정책이 학교와 일상 속에 안정적으로 확산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자원과 교육 인프를 연계해 학생들의 예술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100% 참자연 그대로 참자연 그대로 쌀국수

보리, 현미 쌀국수 밀가루 NO!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건강한 국수

- ※ 청원생명쌀로 만든 친환경 쌀국수
- ※ 청주시 학교급식 선정 제품!
- ※ 밀가루 0%, 100% 국산 곡물만 사용
- ※ HACCP 인증 시설 + 특허 받은 국수 제조 기술

※ 우리 아이 급식, 이왕이면 쌀로 만든 건강한 국수로!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고 국내산 곡물만으로 만든 쌀국수! 남는 쌀 소비 + 학생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 답례품, 선물용으로도 딱!
정성 담은 건강한 국수,
돌잔치, 행사, 감사 선물로도 인기!

납품, 구매문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북로 836. 1층
대표 윤충근 ☎ 010-5485-4748



진성여고 보건간호과, 예비 의료인 전공 역량 입증

여수시 대표로 출전 전남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전남 여수 진성여자고등학교(교장 김영호) 보건간호과 2학년 학생들이 여수시 대표로 출전한 '2026년 전라남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뛰어난 전공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3월 18일 화순 하나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남 내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경쟁한 팀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여수시 대표로 출전한 진성여고 보건간호과 2학년 8명의 학생들은 '시뮬레이션(사자하다, 피하다, 살아나다)'이라는 참신한 이름으로 팀을 꾸려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SNS 챌린지의 위험성을 주제로



직접 시나리오를 기획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뮬레이션 팀은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분별한 챌린지 상황을 연극 형태로 실감 나게 연출하는 한편,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정확한

성여고 보건간호과 학생들의 탄탄한 실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널리 알린 값진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번 경연에 참가한 강예은 학생(보건간호과 2학년)은 "매일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어 시나리오를 짜고 연습하면서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협동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며, "무엇보다 전라남도라는 큰 무대에 여수시 대표로서 우리만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무척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진성여고 보건간호과는 체계적인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예비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대외 활동을 적극 지원해 지역 사회의 참가자들이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장려상을 수상한 것은 진

문태석 기자 2589news@daum.net

한국창의예술중·고, 광양매화축제서 봄의 선율 선사

현악 사중주 등 다채로운 공연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 이끌어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열린 광양매화축제에서 한국창의예술중·고등학교(교장 이상훈) 학생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광양시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광양매화축제에 초청된 한국창의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3월 16일 축제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음악 공연으로 봄의 정취를 더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한국창의예술중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피아노 반주에 맞춘 현악 사중주 연주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학생들은 라스트 카니발(조루 노리히로)과 '벼랑 위의 포뇨(히사시이 조)'를 연주하며 섬세한 앙상블과 안정적인 연주로 큰 박수를 받았다.

연주에는 바이올린 1에 3학년 강O희, 바이올린 2에 2학년 김O빛, 비올라에 3학년 박O희, 첼로에 3학년 김O원 학생이 참여했으며, 피아노 반주는 3학년 전O민 학생이 맡아 안정적인 연주로 무대를 이끌었다.

또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봄을 주제로 한 대중음악 중심의 무대를 구성하였으며, 3학년 김O현, 박O진, 송O연, 이O은, 2학년 조O랑, 이O찬 학생이 참여해 '봄 그



리고 너(마틴스미스)'를 비롯한 총 5곡을 공연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용음악 분야의 역량과 감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였다.

한국창의예술중·고등학교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평소에도 야간 시간에 꾸준히 연습을 이어왔고, 방학 기간에도 개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연습을 지속하는 등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매화꽃이 만개한 축제 현장에서 아름다운 연주로 이어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은 직접 관람한 교장 이상훈 교장은 "학생들이 성실하게 준비한 노력과 열정이 무대에서 잘 드러났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에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한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한국창의예술중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예술교육 과정이 모두 갖춰진 '완성 학습'을 운영하게 됐으며, 광양시의 지원과 광양교육지원청의 교육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전문 실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는 음악과와 미술과가 각각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축제와 학교 예술교육이 어우러진 의미 있는 무대로, 지역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 예술 인재들의 가능성과 열정을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서옥관 기자 2580news@daum.net

함평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와의 아름다운 동행

학교 밖 돌봄 활성화 위한 학습교재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교육격차 해소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순)은 지난 3월 10일 함평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함평 관내 10개 지역아동센터에 교육 교재를 구입해 학교 밖 돌봄 활성화를 위한 학습교재를 지원했다.

2026년 상반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학습교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초등 추천 도서 및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신청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방학 중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재를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교재와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보내준 함평교육지원청에 감사하다"며, "학생들의 꿈

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고 노고를 치하하며, "지역아동센터가 이용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가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꿈이룸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함평교육지원청의 관심과 특히, 센터가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며 센터를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현재 함평지역에는 10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270명의 학생을 위한 보호·교육·건강한 놀이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석범 기자 2580news@daum.net

고흥 동강초, 태백산맥 전권 필사 완주 기념식

학부모 전승희 씨 2년간의 끈기로 10권 분량 펴과 인쇄 담긴 대장정 마무리

지난 3월 19일 고흥군 동강초등학교(교장 나미경) 체육관에서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전권 필사 완주를 축하하는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다.

본교 학부모인 전승희 씨는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펜을 들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온 끝에 이 경이로운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눈으로 읽기에도 벅

찬 대하소설 10권을 오직 손끝의 힘으로 완성해 낸 위대한 인내의 결실이 공개됐다. '필사(筆寫)'는 단순히 글자를 베껴 쓰는 행위가 아니라,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음미하며 작가의 숨결을 더듬어가는 고독하고도 깊은 독서법이다.

이번 필사의 대상이 된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은 해방 공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치열했던 현대

사를 민중의 생명력으로 그려낸 한국 문학의 금자탑으로, 총 10권, 2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흘린 땀방울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되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10권의 필사 노트와 닳아 빈 통탄 남은 수십 자루의 볼펜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에게

김종철 기자 2580news@daum.net

나주 금성고 "스포츠 통해 격의 없이 소통해요"

학생 스포츠클럽 'G-리그' 개막 기념 사제동행 배구대회 개최



전남 나주 금성고등학교(교장 나호연)는 지난 3월 19일 교내 학생 스포츠클럽인 'G-리그'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기념행사로 '사제기간 정나눔 배구시합'을 개최했다.

학교체육관 금오관에서 공강 시간을 활용해 진행된 이번 경기는 학생과 교사가 스포츠를 통해 격

의 없이 소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장에는 시합을 보기 위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응원을 펼치며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경기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선생님들과 함께 땀 흘리는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며, "우리 팀이 이겨서 기쁨이 두 배고, 앞으로 이어질 경기들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성고등학교 학생생활부장은 "G-리그는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오늘 사제기간 시합이 사제 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성고등학교 G-리그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배구, 풋살, 배드민턴, 보드게임, E-Sports 등 다양한 종목의 연중 시즌제로 운영하는 금성고등학교만의 특색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막전을 시작으로 학년별 점심시간과 공강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종목의 리그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기정 기자 2580news@daum.net

영암 구림공고 RCY '글로벌 세이버'팀 영암소방서 심폐소생술 대회 최우수상

'전기 감전 사고에 의한 심정지' 상황 리얼하게 연기하며, 감전 사고 시 구조자가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완벽한 심폐소생술 시범을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전남 영암 구림공업고등학교(교장 박성순)에 올해 새롭게 창단된 청소년적십자(RCY) 소속 팀이 영암소방서가 주관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3월 12일 밝혔다.

RCY 창단 후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체계적인 준비가 빛을 발한 무대였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명칭인 '글로벌 세이버(Global Saver)'는 '국적이 상관없이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라는 송고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뜻에 걸맞게 팀은 대표 최우수(3학년 건축과), 부대표 박소은, 김현수(이상 3학년 전기전자과) 학생을 비롯해, 베트남 유학생 우유엔 타오 씨, 부 레 민 아인(이상 2학년 한옥건축과) 등 총 5명의 다국적 학생들이 구성됐다.

이들은 '국경 없는 구조대'라는 독창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해 경연에 임했다. 실제 교내 전기과 실습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진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회를 준비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깊이 체감한 부대표 박소은 학생(3학년 전기전자과)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

박소은 학생(3학년 전기전자과)은 "응급 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반복해서 연습하며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이번 경험을 통

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큰 매력을 느꼈고, 앞으로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직업으로 저의 꿈을 넓히고 싶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팀 대표 최우수 학생(3학년 건축과)은 "처음 창단된 RCY에서 나가는 첫 대회라 부담감도 있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정확한 방법과 열심을 배운다는 사명감으로 팀원과 열심히 연습했다. 모두가 하나되어 좋은 결과를 얻어 영광스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우유엔 타오 씨 학생(2학년 한옥건축과) 학생은 "베트남 학교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경연 대회가 없어 이번 대회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한국 선배님들과 함께 응급 처치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대회까지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연습 내내 가슴이 뛰었다"라고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조경주 기자 2580news@daum.net

순천교육지원청, '토닥토닥학습지원단' 역량 강화

조기 진단·맞춤형 지도 역량 키워 기초학력 격차 해소 기대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신규)은 3월 19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토닥토닥학습지원단 4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 저해 요인을 깊이 이해해 보다 정밀한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는 총 6시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학습자의 마음 보폭 따라잡기'와 '보드게임을 활용한 인지정서 향상 프로그램' 등 두 개의 핵심 강좌로 진행됐다. 마음산책 실



활용한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는 교수 전략을 체득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토닥토닥학습지원단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맞춤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습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신규 교육장은 "학습지원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의 마음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지원단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만열 기자 2580news@daum.net

“우리 아이 미래 부모가 먼저 배운다”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육 강사단 8개 분야 30일까지 공모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학부모교육 강사단'을 새롭게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사단 재구성에는 증가하는 학부모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강의 역량을 갖춘 강사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분야는 △자녀이해 부모교

육 △자기주도학습 △독서·인문 교육 △AI 역량교육 △경제·금융 교육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기후·생태환경교육 △성교육 등 8개 분야다.

특히 올해는 선발 방식을 더욱 엄격하고 체계화한다. 지원자가 제출한 강의 시연 동영상과 강의 계획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거쳐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전달력과 학부모와의 공

감·소통 능력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3~30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모문을 확인한 뒤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강사단은 오는 5월부터 1년간 전북 지역 학부모들을 위한 핵심 교육 인력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은 연 2회 이상의 역량 강화 워크숍과 상시모니터링을 통

해 학부모교육의 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문성을 검증받은 우수한 강사단 구축을 통해 학부모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교통안전 캠페인... 등굣길 안전 확보

전주효자초등학교 일원서 개학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전주효자초등학교 일원에서 개학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새 학기를 맞아 등굣길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도교육청 관계자와 전주효자초 교직원 등이 참여해 등굣길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한 보행 3원칙(서다·보다·건다) △신호등 지키기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등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교통안전 반사경(옐로카드) 등 교통안전용품을 배부하며 학생들



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했다.

또한 등굣길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며 불법 주차차 및 노상 적치물 등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병행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개학기

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학교·지역 함께 아이 키우는 운동네 돌봄체계 마련

전북교육청, 학교늘봄협의체 신설·운영... 지역 여건 맞는 돌봄·교육 연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연계 강화를 위해 ‘학교늘봄협의체’를 신설·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늘봄협의체’는 학교·지자체·지역돌봄기관 관계자들이 합

께 참여해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협의하는 기구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과 교육을 연계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운동네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전북교육청은 늘봄학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돌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학교늘봄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

갈 계획이다.

늘봄지원실장을 중심으로 학교 늘봄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기초 및 광역늘봄협의체를 연계 운영해 지역 중심의 운동네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20일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에서 ‘3월 늘봄지원실장 역량강화 연수’를 열고,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 방향과 학교 단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학교늘봄협의체 운영 방법 안내 및 사례 공유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늘봄학교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학교 늘봄협의체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협력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안전하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AI 교육, 전북이 먼저 시동 건다

전북교육청, AI 중점학교 착수 워크숍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AI 중점학교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AI 중점학교 착수 워크숍’을 운영한다.

AI 중점학교는 AI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연계해 수업·평가·학교 운영의 변화를 이끄는 학교로,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도형 3개교·중심형 54개교·문화 확산형 24개교 등 총 81개교를 선정했다.

이번 착수 워크숍은 AI 중점학교 사업의 운영 방향과 목적을 공

유하고, AI 교육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다.

워크숍에서는 AI 교육의 최신 동향과 전북 AI 교육의 현안을 공유하고, 중점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의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초·중·고 학교급별 컨설턴트를 구성하고, 연중 컨설팅 체계를 가동해 일회성 연수에 그치지 않는 학교 현장에서 AI 수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

또한 워크숍에서 공유된 우수 운영 사례와 실행 노하우는 수업 사례 공개, 권역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 학교로도 단계적으로 확산, 도내 전체 학교로 AI 교육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AI 중점학교가 단순 시범사업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AI 교육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81개교 모두가 내실 있는 AI 교육을 실현하고, 전북의 모든 학생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학생·학부모 대입 준비 적극 지원

전북교육청, 맞춤형 대입 전략 돕는 진학상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준비 지원을 위해 ‘지역별 대면·화상 진학상담(야간)’을 운영한다.

진학상담은 오는 30일부터 12월까지 이어지며, 전북교육청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전주 진로진학센터에서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총 4회차 운영된다.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시 교육지원청은 매주 상담이 운영되며,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교육지원청은 격주 운영 및 줌(Zoom)을 활용한 화상 상담이 함께 진행된다.

상담 신청은 전북진로진학 누리집 접속 후 ‘지역별 대면 화상 상담(야간)’ 메뉴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도내 중·고등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부모 등 대입 진학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상담 희망일 기준 4주 전부터 1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상담 시간은 40분이다.

상담에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팀 교사 50여 명이 참여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대학 및 학과 선택, 수능 대비 학습 전략, 면접 준비 등 대입 준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보다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위해 ‘올인원(All in

One) 진로진학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진학 정보를 원클릭으로 확인하고 상담 신청이 가능한 통합 진학지원 플랫폼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대입 제도 변화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진학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도내 모든 지역에서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진학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

올해 시행되는 유보통합 공모사업·주요 사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전북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시행되는 유보통합 공모사업 및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는 도내 어린이집 원장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앞서 지난 1월에는 유치원 원장 대상 설명회가 진행됐다.

2026년 전북 유보통합 정책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기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와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에 초점을 뒀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거점형 돌봄 운영 △드림아이(Dream I) 유아 발달 지원 사업 △유·보·초 이음교육 운영 △유치원-어린이집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등 유보통합 공모사업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를 지원하는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 △찾아가는 미래교육 지원 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등 유보통합 주요사업을 안내하고,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북유아교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아체험, 보육교직원 연수 등도 안내했다.

김홍태 기자 kht@

PA·AV 산업의 뉴리더 (주)케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약속드립니다.

학교방송시스템 우수제품기업 주식회사 케빅

장영실상 수상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등록

우수디자인 선정

우수발명품

GS인증 1등급

G-PASS 인증

주식회사 케빅
www.kevic.com

본사: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06호 (민락동, 의정부 더리브 센텀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공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제품문의 1661-2669

[부안 교육문화회관]

[전남 예술고등학교]

[신남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서석홀]

[철원 고등학교]

[서울 매봉초등학교]

殷字·東夷·韓民族 이야기

강강수월래, 춤추는 글자의 기원

한여름 보름달 아래,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추던 기억이 있는가. “강강수월래—” 소리를 높이면, 어느새 우리 몸은 노래와 하나가 되고, 둥근 원 속에서 삶의 고단함도 흩어진다. 이 단순한 원무(圓舞), 곧 손잡고 도는 춤은 어쩌면 수천 년을 이어온 인간 공동체의 원초적 몸짓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춤’이라는 글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쓰는 ‘舞(무)’자는 갑골문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단순한 몸놀림 이상의 의미, 곧 공동체가 하늘에 기도하고 자연과 소통하던 오래된 제의적 기억이 숨어 있다.

□ 팔 벌린 사람, 손에 든 도구

갑골문 속 ‘舞’는 단순하다. 두 팔을 활짝 벌린 사람의 형상(大) 위에, 양손에 나뭇가지나 깃털, 혹은 꼬리 같은 도구가 달려 있다. 이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어떤 이는 소의 꼬리라고 했고, 어떤 이는 깃털 장식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제의적 도구, 이를테면 바람과 비를 불러들이는 가지나 부채와 같은 기능을 가진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림 21] ‘舞’ 참조

중요한 건, 춤의 본래 모습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양손에

[그림 21] (舞, 舞) 자의 형성과정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舞				
無				

든 도구는 하늘에 대한 기도, 특히 기우제와 같은 제천의식의 상징일 수 있다. 하늘을 향해 흔들고, 땅을 두드리며, 무리를 지어 돌던 춤. ‘舞’의 출발은 곧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하늘과 소통하던 몸짓이었다.

□ 발자국이 더해지다

흥미로운 점은 글자의 변화다. 갑골문에서는 단순히 팔 벌린 사람과 도구만 그려졌지만, 금문(청동기에 새겨진 문자)과 소전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다. 바로 발자국이다.

글자 아래 ‘止(발자국 지)’ 모양이 덧붙으며, 이제 ‘무’는 단순히 도구를 든 사람이 아니라 발을 옮기며 움직이는 장면으로 변한다. 다시 말해, 춤은 손의 동작과 함께 발의 움직임까지 담아내며 본격적으로 ‘춤’의 의미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舞’와 ‘無(없음 무)’가 일시적으로 의미 관계를 맺은 흔적도 보인다. 어떤 제의에서는 손에 든 도구를 볼 속에 던져 대음으로써 ‘없어짐’을 상징했는데, 이런 의례적 맥락이 ‘무(無)’의 뜻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문자학적 세부는 복잡하지만, 분명한 것은 춤과 제의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춤은 제사였다

우리는 춤을 흔히 예술이나 오락으로 본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춤은 무엇보다 제사였다. 춤은 신과 만나는 길이었고,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였다.

중국의 종묘대제 기록에는 ‘무구(舞具)’라는 도구가 등장한다. 북과 피리뿐 아니라, 춤추는 이들이 손에 들던 도구

가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종묘제례악에서도 춤은 빠질 수 없는 요소다.

다만 조선시대의 종묘무는 송나라와 고려를 거쳐 들어온 양식을 계승한 것이어서, 갑골문 ‘舞’의 원형과 동일시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의식에서 춤이 빠질 수 없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춤은 곧 기도였고, 기도는 춤이었다.

□ 고고학과 민속의 증언

문자의 해석을 넘어 고고학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준다. 요하 지역의 우하량 유적에는 제천을 위한 원형 재단이 발견되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원원지방’ 사상을 구현한 구조다. 흥미롭게도 강화도의 참성단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우연일까, 전승일까?

또한 중국과 티베트 일대에서는 4~5천 년 전 도자기에서 원을 그리며 춤추는 무리의 그림이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동글게 선 채 발을 구르며 춤을 춘다.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문득 오늘날의 ‘강강수월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강강수월래가 곧 갑골문 ‘舞’의 원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화는 복잡하게 전파되고 변용된다. 그러나 원무, 즉 원을 그리며 집단으로 추는

춤이 인류 보편의 오래된 제의적 몸짓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강강수월래는 그 기억의 한국적 변주라 할 수 있다.

□ 춤은 어떻게 전승되었나

고대의 춤이 제의적 기원에서 출발했다면, 이후의 역사는 수용과 변용의 과정이었다. 송나라에서 유입된 궁중무가 고려와 조선을 거쳐 종묘제례악에 자리 잡았듯, 춤은 국경과 시대를 넘어 옷을 갈아입으며 이어졌다. 고구려의 넓은 소매춤 갑골문 ‘舞’와 직접 연결 짓는 해석도 있지만, 역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춤이 시대마다 다른 이름과 형식을 입었어도 그 뿌리에는 늘 공동체적 기도와 제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이 곧 춤의 본질이었다.

□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춤이 왜 필요했을까. 단순히 즐기게 위해서였을까. 아니다. 춤은 곧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풍년이 들어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다. 하늘에 기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몸을 흔들고, 손에 도구를 들고, 발을 구르며 춤을 쳤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 비를 빌기 위해 춤을 추지 않는다. 그러나 축제와 무대, 혹은 운동장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며 몸을 흔들 때,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 춤은 여

전히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강강수월래는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오래된 기도의 기억이자, 공동체가 함께 살아남고자 했던 몸짓의 유산이다.

□ 맺으며

갑골문 ‘舞’는 단순히 춤을 뜻하는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팔 벌린 사람과 양손의 도구, 그리고 발자국이 새겨진, 살아 있는 의식의 기록이다. 춤은 오락이 아니라 제사였고, 기도였다.

우하량의 재단, 강화도의 참성단, 고대 도자기의 원무, 그리고 오늘날의 강강수월래. 이 모든 것이 서로 닮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춤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이다. 노래와 몸짓으로 하늘에 닿고, 서로의 마음에 닿고자 했던 몸의 언어.

‘舞’라는 글자 속에는 바로 그 언어가 새겨져 있다. 춤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였고, 글자는 그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한 도구였다. 수천 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글자 속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다.



□ 육우균

◇ 교육연합신문 주필

전재학의 교육칼럼

요즘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핫(Hot)한 말

최근 학교 현장에서 유행하는 말이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도 널리 유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 중학교 수행평가 시간, 고등학교 탐구 보고서 지도 현장, 심지어 대학 강의실까지 관통하는 가장 ‘핫(hot)한 말’이 있다. 바로 “이건 AI한테 물어보면 돼요”이다. 이를 조금 변주하면 “챗GPT에 돌려봤어요”, “프롬프트 이렇게 쓰면 답 잘 나와요”, “AI랑 같이 했어요”이다. 이 짧은 문장들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다. 지금 교육이 어디에서 있는지, 무엇을 잃고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를 은근히 고백하는 시대의 은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이 뜨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는 것’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과거 교실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은 ‘외워라’,

“이제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만이 아니라 질문할 줄 아는 인간, 판단할 줄 아는 시민, 책임질 줄 아는 지식인을 길러내는 일이다”

“정답은 이것이다”였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다. 정답은 더 이상 찾기 어려운 정도로 희소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AI는 질문만 던지면 즉시 설명하고, 요약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글까지 써준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묻는다. “굳이 이걸 외워야 하나요?”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늘 이 말이 따른다. “AI가 다 해주는데요~” 이 말은 게으름, 나태함의 선언이 아니라, 지식 중심 교육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자 불복

중이다. 이처럼 “AI한테 물어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제 교육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 말이 시사하는 교육적 전환은 분명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는냐가 아니라, 무엇을 묻느냐, 어떻게 질문을 구조화하느냐, 나온 답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교실에서는 은근히 또 다른 말이 유행한다. “프롬프트가 중요해요.” 이 말은 교육의 중심이 지식 → 사

고, 암기 → 질문, 정답 →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AI는 계산기와 결코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계산기가 수학 실력을 대신해 주지 않듯, AI도 생각하는 힘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교실의 언어는 교육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바로 교육은 ‘지도에서 나침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AI한테 물어보면 돼요”라는 말은 교육을 하나의 비유로 바꾸어 놓고 있다. 과거 교육이 정확한 지도를 나눠주는 일이었다면, 지금 교육은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반을 알려주는 일이다.

지도는 AI가 더 잘 그린다. 하지만 어느 길을 갈지, 왜 그 길을 선택할지, 중간에 길을 바꿀 용기는 있는지, 이것은 여전히 인간의 선택 몫이다. 그래서 이 유행어는 역설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사

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더 깊어진다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지금 교실에 필요한 질문은 “AI를 써도 되나요?”가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답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는가?”, “나는 이 결과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은 AI가 대신 던져주지 않는다. 교육만이, 교실만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만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제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것이다. “AI 때문에 교육이 끝났다.”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AI 때문에 교육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요즘 교실에서 “AI한테 물어보면 돼요”라는 말의 유행은 교육의 패배 선언이 아니라, 교육이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징후다. 따라서 AI시대는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를 다시금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만이 아니라, 질문할 줄 아는 인간, 판단할 줄

아는 시민, 책임질 줄 아는 지식인을 길러내는 일이다. AI는 답을 준다. 하지만 교육은 여전히 묻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교육은 결코 한 시대의 유행(trend)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바야흐로 교육은 질문과 선택의 시대로 깊숙이 진입했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전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전세종포교·인천세원고 교장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최윤용의 100세 칼럼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의 과학적 관리

○ 새학기 숨길 막는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차가운 겨울 바람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기운이 피어나는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쉼 새 없이 이어지는 콧물과 재채기, 코막힘으로 인해 두려운 시기가기도 합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5%가 이 알레르기 비염(allergic rhinitis)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코 점막이 꽃가루, 먼지 등 특정 항원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 점막 장벽이 손상되고 제2형 도움 T세포(T-helper type 2) 매개 염증이 발생하는 면역 질환입니다.

○ 계절 탓으로 돌린 코막힘, 수면과 학습을 위협하는 전신 질환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봄철에만 잠깐 견디면 되는 병” 혹은 “증상이 심할 때 개인적으로 항히스타민제

를 구입하여 복용하면 되는 가벼운 질환”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전신, 습진, 만성 부비염(축농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성적인 두통과 수면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에게 코막힘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는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불치병이거나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낫는 질환이라는 오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경우 예후가 비교적 좋은 질환으로 평가되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증상의 완전한 소실 및 원인 노출 종료 후 치료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효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알레르기 비염이 불치병이기 때문이 아니라, 치료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원인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한 코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반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질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신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의 치료의 면역 조절 효과

한의 치료는 증상의 일시적인 억제를 넘어, 무너진 코 점막의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의 균형을 되찾는 방향으로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 기전과 효과는 국제 점막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을 통해 점점 더 자세하게 규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강 내 침 치료의 즉각적인 점막 안정화 효과입니다. 2023년 출판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 따르면, 코 주변의 특정 부위에 시술하는 침 치료가 만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증상 개선

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베이저안 통제기법을 활용하여 여러 임상시험 결과를 합성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서도 다양한 침 치료 기법이 비염 증상을 유의미하면서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오랜 기간 활용되어 온 한약의 면역 조절 및 항염증 효과입니다. 예컨대, 2022년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맑은 콧물과 재채기를 동반하는 비염에 현재도 널리 활용되는 한약 ‘소청룡탕’이 뛰어난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호흡기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쓰이는 ‘육병풍산’의 경우, 2025년의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통해 관련 질환에 자주 시달리는 비염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2026년 발표될 최신 임상-실험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에서

는 이 육병풍산 기반 코 점적액(nasal drops)이 점막의 염증 매개 경로를 억제하고, 면역 세포(Th17/Treg)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용에 대해 분자생물학적 수준에서 그 기전을 규명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호흡기 건강 관리법

봄철 비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속 적극적인 환경 관리가 1차 치료법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여 외부 항원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주요 항원인 집먼지진드기의 번식을 막기 위해 제습기 등을 활용하여 실내 습도를 30~50%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있다면 침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침실과 주요 활동 공간에 고효율 공기청정 필터를 가동하여 공기 중의 항원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외출 후에는 등장성 또는 고장성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비강 내부를 세척하면 점막에 붙은 항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증상 중증도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의료진의 처방 없이 국소 비강 충혈제거제(코막힘 스프레이) 등을 장기간 남용할 경우, 오히려 코 점막이 비대해지고 기능이 망가지는 약물유발성 비염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한 코의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 면역 질환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임의로 약물을 활용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생활 환경 관리와 함께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맞춤 치료를 병행하여 건강한 호흡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최윤용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주)로트셀링 대표이사



부산관광고등학교, 관광·MICE 이끝 인재 양성의 새 지평 열다

부산 벡스코서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식 개최... 산업·교육 협력 기반 미래 관광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부산관광고등학교

부산 관광·MICE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공식 출범했다.

부산관광고등학교(교장 정정부)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0시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 2층 씨밋홀에서 '2026학년도 부산관광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식'을 개최하고 관광·MICE 산업 인재 양성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이번 개교식에는 민용기 재단이사장과 정정부 교장을 비롯해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서구청,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부산광역시관광협회, 부울경관광벤처협의회, (사)부산컨벤션산업협회 등 관광·MICE 산업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와 교육계 인사, 학생,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관광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 학생 난타 공연으로 임한 개교식

이날 개교식은 부산관광고 재학생들의 난타 공연으로 활기치게 시작했다. 학생들은 역동적인 북소리와 박진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고, 미래 관광 산업을 이끌 학생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후 개교 선언과 학교 비전 발표, 축사 등이 이어지며 부산 관광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 관광산업과 교육을 잇는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

부산관광고등학교는 관광·MICE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산업계,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을 도입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산업과 교육이 긴밀히 연결된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산업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산관광고는 관광서비스, 컨벤션 운영, 관광마케팅, 글로벌 관광비즈니스 등 관광·MICE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현장 맞춤형 관광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과 인턴십,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 "부산 관광도시 경쟁력, 인재 양성이 시작"

민용기 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관광산업에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이사장은 "관광산업은 도시의 브랜드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부산관광고등학교가 관광산업과 교육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을 이끌 인재를 키워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MICE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전문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부산관광고등학교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정부 교장 "산업과 교육이 함께 만드는 미래형 관광교육"

정정부 부산관광고등학교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부산 관광·MICE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직업교육의 방향을 강조했다. 정 교장은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36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대

하는 관광도시로 성장했고,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MICE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도시 경쟁력 속에서 부산관광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관광고는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통해 관광·MICE 산업 전문가와 미식관광을 이끌 스타 셰프를 양성하고, 부산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 거점학교로 도약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장은 이를 위한 교육 전략으로 3단계 교육 플랜을 제시했다.

먼저 산업체 중심의 B-MICE+ 인증 자격제도를 통해 외국어 능력과 직업 기초능력, 현장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이어 3학년 2학기에는 협약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약 대학과 연계한 일학습병행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경력과 학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 인재로 성장하고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 교장은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는 학교와 지역사회, 산업계가 함께 협력해 미래 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교육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부산관광고가 부산을 넘어 전국 협약형 특성화고의 대표적인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관광MICE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번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를 통해 부산관광고등학교는 지역 관광산업과 교육을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특히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부산광역시관광협회, 부울경관광벤처협의회, 부산컨벤션산업협회 등 관광·MICE 산업 주요 기관들

과 협력해 현장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교가 부산 관광 산업과 직업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협력기관 감사패 전달... '함께 만든 교육의 출발'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과 관광·MICE 교육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부산관광고등학교는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서구청,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부산광역시관광협회, 부울경관광벤처협의회, (사)부산컨벤션산업협회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정부 교장은 "오늘의 개교는 학교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협력기관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부산 관광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을 이끌 관광교육 허브"

부산관광고등학교는 앞으로 관광서비스와 컨벤션 산업, 관광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부산 관광산업을 이끌 관광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교육계는 이번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가 부산이 글로벌 관광·MICE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과 교육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이 부산 관광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이정현 기자 jlh@

